

“22대 국회, 인구 국가비상사태 맞아 태아보호법 입법해야”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국회 앞 기자회견

한 여성이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브이로그(V-log) 형식의 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사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낙태 규제 관련 실효 규정은 전무한 상태로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낙태까지 가능한 상황이어서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대표 김길수 목사)는 오는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트럭 출발식과 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주관단체는 (사단법인)프로라이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사랑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에스더기도운동, 아름다운과학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자유발언에서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대표는 “최근 36주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이 유튜브 영상으로 게재됐다. 이는 엄마의 자궁이 아이의 무덤이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이를 죽일 권리가 없다. 생명존중사상이 이 나라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대해 “어떤 양심적 가책도 법적제재도 없는 현재 상황의 한 단면”이라며 “2020년까지 국회는 낙태법 관련 법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국회정부 모두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21대 국회에 2020년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 의무를 외면하면서 현재까지 낙태를 규제하는 실효 규정은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대법원은 낙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어난 신생아를 물 양동이에 빠뜨려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때 대법원은 3000만 원을 받고 낙태를 진행한 의사에 유아살인죄 혐의만 적용했을 뿐,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유는 현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위헌 결정된 법규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30주 이상의 다 큰 아기를 낙태해도 어떤 법적제재가 없는 이 대한민국에 과연 선진민주시민의식이 있는가”라며 “태아는 산모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독립적 생명체다. 2017년 국회 세미나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하루 3천 건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35조를 쏟아부었는데, 낙태만 제대로 막아도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철 프로라이프 고문은 “국회는 권력의 다름 장이 아니라 입법부다.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입법해서 낙태의 피해자



국회 앞에서 생명존중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노형구 기자

인 태아와 여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태아는 수정부터 인간이라는 사실은 성경적·도덕적·과학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만, 유훈론에 사로잡힌 이들은 태아를 하나의 세포로 치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면서 태아를 벅속에서 합부로 지우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대표(고려대 의대 산부인과학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르면,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세상에서 중요한 생명체라고 적시됐다. 가장 약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며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태아를 죽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낙태 과정에서 태아는 팔과 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낀다”며 “태아보호법을 만들어 태아 생명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 태아의 상속권을 적시하며 태아를 이미 출생한 한 사람의 몫으로 간주한 것처럼, 모자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태아도 적시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가 이날부터 진행하는 생명트럭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생명트럭은 한달 6회 정도 국회대로 일대 및 지방을 순회할 예정이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민의 명령이다. 인구비상사태다. 태아생명보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표어를 적극 광고할 계획이다.

이명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생명트럭으로 반 생명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국민의 이기심이 배려의 마음



김길수 목사가 태아 모형과 태아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지금은 생명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태아생명보호법을 만들어 달라. 생명트럭이 지날 때마다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날 주최 측 대표 김길수 목사가 발표한 생명트럭 출발 및 태아보호법 입법 촉구 성명사에서 “생명 트럭은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관련 법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인간의 생명이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2019년 현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며’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태

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국가 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것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율리 “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태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법과 제도,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책임자 할 일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구비상사태로 국가의 존망이 어두운 이 시점에 국회는 더 이상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 놀음을 해서 는 안 된다”며 “이제 22대 국회는 인구국기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마음으로 태아 보호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가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태아보호법(낙태법)을 제정할 때까지 생명트럭 운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북한 내부서 민주화와 자유 위한 자체 조직 활동 중”

제21차 북한자유주간 4일차인 10일 오후 1시30분 다롄스포럼재단(의장 윌리엄 미덴도르프 2세)은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국회포럼을 열고 16명의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는 총 9명의 NGO 지도자와 7명의 특별 증인이 나섰으며 기존에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주목되는 점은 대북 방송과 배라 등의 북한정보 유입으로 인해 많은 탈북민들은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군사분계선 가까이 교동도에 살았던 박신혁 씨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대북방

송과 배라 및 각종 통로를 통해 유입되는 방송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길러 왔다고 밝혔다. 현재 자유북한 방송 기자로 활동 중인 배광민 씨는 어린 시절 북한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아버지가 평양에서 양강도 오지로 이동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삶이 너무도 힘들 때 탈북을 마음에 품게 됐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반입된 각종 정보들로 인해 북한의 처참한 실태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배광민 씨는 험난했던 탈북의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탈북이 실패할 경우 2살 어린 딸이 반역자의 딸로 평생 고동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알기에



10일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국회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유사시 어린 딸을 직접 죽일 각오로 칼을 품고 국경을 건넌 절박한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장세을 씨는 현재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보들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북한 내부 더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조직이 스스로 만들어져 활동 중임을 알렸다. 또 장세을

씨는 북한에 정보 유입을 하는 활동을 하면서 형제 3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함께 협력하던 15명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17년 전 탈북한 김홍광 씨는 47년 동안 북한에서 지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풍요를 대한민국에서 자유 가운데서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밝혔다. 하지만 탈북 실패를 설명하면서 “탈북을 시도하는 100명 중 10명 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머지 90명은 중국 공안에 체포 및 강제북송되거나 두만강과 압록강 등 국경에서 총살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참상이 마냥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사슴은 좋은 풀을 찾으면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바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고 있는 박상학 씨는 “우리는 달리 돈과 쌀, 그리고 진실을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응해 오물을 보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날 탈북민들은 21년간 북한자유주간을 이끌어 온 수잔 솔티 여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한국은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좌우가 갈라져 싸우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분들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에 감동을 받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홍광 씨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북한자유주간을 만들고, 또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미 의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준 수잔 솔티 여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대원 기자

XU 자이 서울 서부권! 소형 주택

소형 주택 **49m²** | 오피스텔 **89m²**

8분 양호도

서울 서부권의 밝은 미래

XU 은평자이 더 스타 PREMIUM 8

계약금 2천만원 정액제	풀옵션 무상제공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26년 5월 입주예정
중도금 전액 무이자	전매 가능
GTX 전체노선 중 가장 빠름 (피주운정 ~ 삼성역 57개역 소요시간 20분대)	서부선(경전철) 수혜단지 (사실역 ~ 서울대입구역 2025년 착공예정)

■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A 2024년 개통예정(운정역 ~ 서울역)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용인역 동탄역

소요시간 약 20분대

문의전화 **1688-3930**

엑스플로'74 50주년 대회서 은혜받은 청년들, 도시 전도

한국CCC, 전국 37개 도시에서 188개 교회와 '도시전도 운동'

한국CCC가 최근 엑스플로(EXPLO)'74 50주년 기념대회 이후 2,5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파송해 전국 37개 도시에서 188개 교회와 함께 '도시전도 운동'을 펼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 도시전도 운동은 한국CCC의 전문 사역조직인 P2C(Power to Change)가 주관했다. P2C는 "도시전도 운동은 'We, the Sent'라는 50주년 대회의 주제처럼, 대회에서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결단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지구가 속한 도시로 들어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THE FOUR, GATEWAY, 에다전도플랫폼, 어린이에디, 코저너, LTC, PCS 관계전도 등 CCC의 다양한 전도 전략을 훈련하고, 실제로 전도실습을 하는가 하면, 교회 정비, 어린이 사역, 노인 사역으로 미

자립교회를 섬기는 등 다양한 지역과 교회의 필요에 맞는 사역을 펼쳤다고 CCC 측은 전했다.

CCC는 "50년 전 엑스플로'74를 통해 훈련한 민족복음화운동 요원 32만 명을 파송해 전국 각지에서 평신도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도시전도 운동을 통해 지역 교회와 함께 도시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합 사역을 확산해 갈 것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전도 운동을 주도한 P2C 디렉터 이창세 목사는 "이번 운동이 단회적인 '도시전도'를 넘어 지속적인 '도시전도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엑스플로'74 50주년 대회를 통해 헌신한 CCC의 사역이 캠퍼스복음화를 넘어 도시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CCC는 50주년 대회 개최 전



CCC 학생들이 전도하고 있다. ©CCC



지역교회 교인들과 함께한 CCC 학생들 ©CCC

인 지난 2월부터 CCC 전임간사 500여 명을 전도 강사로 훈련시켰고, 4-6월경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전도 솔루션 캠프,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 특강, CCC 학생들과 마마클럽이 함께하는 도시 연합 기도회 등을 진행해 도시전도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고 한다.

CCC는 "이번 도시전도 운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복음화 운동 확산을 위해

각 지역 교회와 후반기 전도 훈련(9-11월 경)을 진행하고, 홈빌드, FWIA, 시그나피 컨트우먼, 교회 코칭 등 다양한 P2C 사역으로 교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전도 운동을 통해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동역한 대전세종양교회 이강민 목사는 "CCC의 훈련받은 청년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됐다. 앞

으로 우리와 같은 지역 교회와 CCC가 계속 연계해서 지역 사회를 살리고, 지역의 여러 영적 상황을 놓고 적극적으로 성서화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전도 운동에 참여한 인천지구의 한 참가자는 "CCC와 교회와 성령님의 협력사역으로 지역 시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보게 돼 감사하다. 준비 과정 중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고 했다.

이어 "평소 기도로 품었던 내가 속한 도시에서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직접 전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런 연합 도시전도 운동을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교회의 반응에 더욱 감사하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영적 대폭발의 시작이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CCC와 함께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GATEWAY 전도실습'에 참여한 김태호 청년(대전세종양교회)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 줬다. GATEWAY로 전도를 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데 훨씬 부담이 덜했다.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낮은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기관 목까지 치겠다는 건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히기가 막힌다. 이들의 소속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누구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의 권한을 삭제한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안보 업무에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요청 등 방식의 조사권을 삭제한다'는 것"이라며 "또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정보를 대공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할 것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켜 정치적 개입과 정략적 이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백엔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존립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중 정보(情報)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를 지

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다"며 "국가에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국가 간 교류와 통상, 외교와 심지어 전쟁에서의 위엄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자르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 목까지 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러려면 왜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서 국가정보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한낱 권력자들의 이용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에서 밀려 고도의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간첩 활동이나 중요한 기밀의 유출 등을 확실하게 세력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혹시라도 정보기관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적국으로 막아야 한다"며 "그러나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를까?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아이까지 버리려는가?"라고 했다. 오호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도 안 된다. 오호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도

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마저 박탈해 유명무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락시키려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과수꾼이 없는 병영(兵營)은 이미 적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겠다는 실책이다.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떠한 적의 도발과 음모로부터 방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불필요하지만, 그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행위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편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며, 지피지(知彼知己)일 때, 우리의 안위는 지켜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를까?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아이까지 버리려는가?"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한적십자사

물망초, 15일부터 4박 5일간 'DMZ통일발걸음' 진행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남한, 탈북, 외국인대학생 70명이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동안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를 걷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제목은 '2024 물망초 DMZ통일발걸음'이다.

주최 측은 "올해는 미국, 터키, 필리핀, 콜롬비아 등 16개국에서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 26명과 남·북한에서 각각 태어난 대학생 등 70여 명이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지의 격전지를 하루 평균 20km씩 걸으며 이 땅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산화해 간 전세계 젊은이들을 가리며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했다.

2013년부터 물망초가 시작한 'DMZ통일발걸음'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간 쉬고 올해로 만 10년째 진행되는 글로벌대학

생 프로그램이다. 발대식은 15일 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 앞에서 진행된다. 이어 형제의 묘, 학도용궁 무명용사탑, 현충탑을 차례로 헌화·참배한 후 3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첫 행선지인 영연방전적비로 떠난다.

행사 둘째 날인 16일에는 백안산 꼭대기에 올라 북으로는 임남담 일대를 바라보고, 남으로는 평화의 댐을 동시에 내려다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의 염원, 세계 각국의 역할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이어 셋째 날인 17일에는 편지봉로 잘 알려진 양구 해안면 일대와 총 5번의 전투가 치러진 두타연 지역 등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이북지역)도 걷는다. 넷째 날인 18일 저녁에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를 회고하며 명사들의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임진각 근처 자유의다리 모습. ©기독일보DB

특강에는 전인범 북특전사령관, 김천식 前통일부 차관, 차동길 前해병대 교육단장, 정수현 예비역 육군준장 등이 함께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참가자들을 현지에서 격려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한기호 국회의원(前국방위원장)과 김경우 前국회의원(前국방위원장), 김석우 前통일부 차관, 김종철 한국외대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대 前검찰총장 등이 함께 한다. 김진영 기자

경기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비온드 유토피아' 상영회 개최

경기도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8일과 10일 경기도청 및 도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를 상영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북

한의 폐쇄된 사회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상영회에는 김규민 감독이 참석해 탈북 현실과 탈북민의 애환에 대해 강연했다.

제1호 북한이탈주민 영화감독인 김규민 감독은 "탈북민들이 겪는 고난과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영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

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직원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요한 기자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성경” “한국엔 종교의 자유”

김건희 여사, 美 서 탈북민 등 만나 북한인권 의견 나눠
김 여사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인권”
“정부, 북한 주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
웬비어 母, 아들 이름 새겨진 목걸이 선물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김 여사는 작년 4월 미국 국민 방문 때도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한국 드

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여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체험했던 탈북민 및 미국인 억류 피해자의 사연과 참석자들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현황 및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로 만난 오토 웬비어 어머니 신디 웬비어는 아들의 이름

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니다며 “해당 목걸이는 오토의 고교시절 공예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이라며 “김 여사께서 오토를 항상 기억해주시어 너무 감사하며, 오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Bible)”이라고 말했고, 탈북민 지하나 씨는 성경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작년에 가족들과 목숨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는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은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공감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행보에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희망을 갖는 등대”가 된다고 호평하고, 영부인이 진정성 있고 꾸준히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행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으며 “탈북민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열약한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단단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나누지 못함에 아쉬워하자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만나 오늘의 아쉬움을 달래자며 인사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간담회 전에 데이먼 윌슨 NED 회장의 안내로 기관을 둘러보며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NED는 전 세



김건희 여사(왼쪽)가 현지 시간 11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 간담회에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11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탈북민·한인2세·미 의원들 “북한인권 개선” 한 목소리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 랠리 진행... KCC, 북한자유주간 협력



1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를 위한 랠리가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21차 북한자유주간 4일차인 10일 오전 11시30분 미국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10개주에서 모인 한인 학생들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참석한 탈북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집회는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의 ‘청소년 미션&인턴십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현장에 여러 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비인도적인 강제복송에 반대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한인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기를 바랐다. 영 김 의원은 전날 레이번 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탈북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의회가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 행사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공산주의를 피해 한국으로 피난했던 배경을 소개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계가 아닌 조너선 잭슨 하원 의원과 버디 카터 하원의원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조너선 잭슨 의원은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들은 모두 자유를 향한 열망에 결국 무너졌다”면서 “자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은 결국 북한

당국에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길은 인권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16명의 탈북민들도 함께 했다. 김대원 기자

MZ세대와 장마당세대가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인권

서울시, 2024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북한인권 토크쇼 개최

2024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MZ세대와 장마당세대가 함께하는 북한인권 토크쇼가 12일 오후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날 북한인권 토크쇼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이 토크쇼 외에도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토크쇼는 최미, 진로, 통일, 북한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MZ세대 대표로 김광철 씨, 김정현 씨, 변지영 씨가 장마당 세대로 이우성 씨, 노진해 학생, 탈북 방송인인 이연아 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통일과 관련해 MZ세대 패널들은 “보통 통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분단 역사가 길어지면 서 그동안 우리와 다르게 차이를 있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같은 언어를 배우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많이 맞

춰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마당 세대 패널 중 노진해 학생은 “통일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생각이 없다는 친구도 있었고 무섭다고 답한 친구도 있었다. 저는 어린 마음에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고향에 친구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쟁사회라서 이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짓눌릴까봐 걱정이 되며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이연아 씨는 “북한에서 28년을 살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아이 교육을 하면서 통일을 교육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전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좀 전에 발언한 패널들의 말처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세대마다 다르다고 인정하며 이를 기성세대가 존



2024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MZ세대와 장마당세대가 함께하는 북한인권 토크쇼가 12일 오후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다. ©최승연 기자

중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에 대해 MZ세대 패널 측은 “어렸을 때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산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유가 억압받고 인권이 탄압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을 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사선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까

프리미엄 고객센터 서비스 | 코칭 매니저(CM) | 사랑On

초고령화·초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은?

예장 백석,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 주제 세미나 개최

예장 백석 총회(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최근 과천소망교회(담임 장현승 목사)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세미나, 3부 마무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장은성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다. 이찬일 목사(사회문제특별위원회 서기)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조승현 목사(사회문제특별위원회 회계)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김진범 목사가 '그 성읍에 아이들이 뛰놀더라(창세기 1: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이규환 목사(부총회장)와 김동기 목사(제1 부총회장)의 축사, 이승수 목사(제2 부총회장)와 임요한 목사(사기)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김종명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남세도 목사(사회문제특별위원회)의 내외빈소개, 정명근 목사(총회[백석] 출판사 사장)의 축도 순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확신된다"며 "사회복지와 초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의 시대적 배경, 한국의 년도 별 저출산 감소율,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의 원인,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의 영향, 저출산 문제와 교회의 역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역할, 각 나라들의 저출산 문제의 대책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곧 복지라는 정책,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 나라가 국가로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출산율은 출산율이 1.5~6% 이상일 때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0.6%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보면 1960년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돌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로 저출산을 구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한국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로서, 이러한 경제적 변동이 인구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1970년대 한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 시기의 인구 증가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경제 발전,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이 컸다. 1980년대에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인구는 계속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둔화되었다"고 했다.

이어 "2000년대에는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지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율은 더 둔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안정과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0년대 인구는 여전히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더욱 둔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동시에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 자연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인구 정책과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했다"고 했다.

배 교수는 "2020년대에 들어 인구는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약 30%나 감소할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저출생 국가가 되어버린 이유는 경제적 요인(취업문제, 주거비 문제, 젊은 세대 취업난), 사회적 요인(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개인주의 확산), 정책적 요인(정부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음)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대안을 다양한 종교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한다면 1)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 강조 2) 윤리적 책임감 강화 3) 사회봉사와 자원 기부 촉진 4) 종교 교육 및 가정교육 강화"이며 "기독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가정이나 결혼

을 중시하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가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하며, 가족 단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종교는 종종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를 가지고 키우는 것은 윤리적 책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배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대응 전략은 1) 출산 장려 정책 2)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3) 결혼 및 출



예장 백석 총회가 과천소망교회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시대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산 환경 개선 4) 교육과 사회적 환경 개선 5) 문화적 변화 촉진 등이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들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출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대안을 잘 제시하면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어 김성이 회장(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제46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문화 및 이민사회의 교회의 역할', 과대석 대표(신안군 복지재단 이사)가 '지역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사례', 황보희 목사(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 시대의 교회의 역할', 이은상 팀장(서울시립 영등포포항종합지원센터)이 '초고령화 시대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돌봄 사역의 역할과 방향', 두재영 목사(전국노인기독교선교재단 사무총장)가 '전국노인기독교선교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승연 기자

배재대, 아펜젤러 리더십 프로그램 '시대를 읽는 리더의 말'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인공지능·블록체인·문화금융 주제로 진행

배재대학교(총장 김욱)는 서울 정동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대를 읽는 리더의 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리더십, 블록체인, 문화금융 등을 주제로 한다.

주요 강사진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리더들이 시대 변화를 이해하고 융합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최고경영자, 대기업 임원 및 간부, 전

인재대 무역학부 교수, 김상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박혜진 서울과항공종합대학 원대학교 교수, 정현경 뮤지카우 대표, 김진식 이엔피 대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김형준 교수와 최연혁 교수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다양성, 융합의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있으며, 각 테마별 세부 주제를 전문가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특별 강연자의 초청 강연도 계획되어 있다.

강사진으로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김상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박영은

인재대 무역학부 교수, 김상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박혜진 서울과항공종합대학 원대학교 교수, 정현경 뮤지카우 대표, 김진식 이엔피 대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등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총괄하는 김형준 교수와 최연혁 교수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다양성, 융합의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지며, 각 테마별 세부 주제를 전문가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특별 강연자의 초청 강연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참가문의는 전화(02-319-8878) 또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appenzeller.pcu.ac.kr/appenzeller>)에서 할 수 있다. 장요한 기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4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교육사업 진행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9회 진행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장경남)은 7월 3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9회에 걸쳐 '2024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행복과정)' 교육사업을 운영한다. 이 교육사업은 서울시 자활 준비 노숙인, 쪽방 거주 저소득층, 공공근로 참여 자활지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문학 및 실용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 소재 대학들 중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가 공동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서울 소재 13개 시

설 소속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철학, 문학, 역사, 글쓰기), 실용교육 강좌(심리, 감성지능, 체험활동 강좌(음악치료, 생활체육, 박물관 견학)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강사진은 송실대 여러 단과대학의 교수와 강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교내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정규 과정 외에도 대학별로 2회의 열린 특강을 운영한다. 지난 6월 24일 첫 번째 특강에서는 박신환 송실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울곡의 마음 훈련과 일상의 거듭나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10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번째 특강은 8월 30일 한한수 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전 송실대학교 13대 총장)이 '사람의 가치와 희망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경남 원장은 "강남권 소재 대학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번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사업에 대해, '자활 지원 주민의 지속 가능한 회복력 배양'을 운영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인문학 교육을 통해 노숙인의 자존감 및 사회 복귀 의지를 강화하고 능동적 자기 치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으며, 올해 서울 재건 70주년을 맞는 송실대의 역사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 이틀이나 교내 견학 같은 세세한 부분에도 송실대학교의 특성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Come feel the love

PRINCESS

'크루즈여행 가상 체험' 이벤트!

동반자까지 총 20명에게 프린세스 선사 초청 썬 크루즈 '선상 투어 및 정찬' 기회를 드립니다!

QR로 응모하세요!

프린세스 크루즈 공식 소셜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이벤트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이벤트 페이지 접속

* 이벤트 기간: ~2024년 8월 12일까지!
* 선박투어 및 정찬 날짜: 2024년 8월 31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 정찬 장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행 문의 및 상담:
Tel. 02)318-1918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 지사 www.princesscruises.co.kr

한기총 대표회장, 올림픽 국가대표 격려

종지협 일원으로 진천 선수촌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최근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에서 진행했으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비롯해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이용훈 의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윤석산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명하 회장이 참석했다. 진천 선수촌에 도착한 종교 지

도자들은 장재근 선수촌장의 안내로 양궁, 배드민턴, 탁구 훈련장과 웨이트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탁구 훈련장에서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4년의 시간을 응원하고 격려한다"며 "그동안의 뜻과 눈물의 노력은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남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와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종지협은 국가대표선수단 격려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맨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종지협 일원으로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했다. ©한기총

개최되는 파리하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22종목에 지원단을 포함해 약 250여 명(출전권을 획득한 선수 144명)이 참가하며, 금메달 5개 이상을 획득해 중

한교총, '제11회 평화음악회 in 군산' 개최

아름다운 이름 '제11회 평화음악회 in 군산'이 12일 오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가 주최하고, (사)더불어배움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평화음악회'는 지난 5월 청주를 시작으로 7월 군산, 9월 서울에서 진행된다.

평화음악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영혼을 돌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평화음악회는 '위로'라는 주제와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이번 군산 평화음악회는 뮤지컬 배우 임태경과 홍지민, 가수 HYNN(박혜원), 추승엽, 테너 채혁이 출연해 에이레네(Eirene)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선보였다.

한교총은 "특히 이번 음악회는 군산 지역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등을 초청해 정서적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평화음악회를 주관하는 더불어배움 상임이사 손달의 목사는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위기가정이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음악회가 기획됐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는 물론 사회구성원 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래하는 음악회가 된 것을 감사한다. 특히 군산에서 이 음악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연주자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이 주최한 평화음악회가 군산에서 열렸다. ©한교총

“한국교회, 성경 가르침 따라 출산·돌봄에 중심 역할해야”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조배숙 의원과 저출산 극복 간담회 가져

세계성서화운동본부 평신도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전 검사장, 범부법인 로고스 설립자),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중 장로, 김운태 목사(목포상상성결교회)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조배숙 의원(5선, 국민의힘)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19년 동안 400조에 달하는 혈세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인구비상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용태 장로는 지난 2006년 12월 재단법인 성서화운동을 설립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출산과 돌봄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출산 극복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중 장로는 전남 목포에서 전개해 온 저출산 극복 사역을 소개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출산을 제안했다. 박 장

로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출산을 위해서는 출산문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 예산 50조 원 중 1조 원을 공익광고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종교단체, 아파트단지 등이 새생명 가임부부보회를 조직해 상담을 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로는 "1400세대 아파트에서 가임부부 출산 상담을 했는데 지난해 9명의 신생아를 출생했다"고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210만 개의 공공 일자리 중 30만 명을 출산상담요원으로 배정하는 일자리 항목의 조정을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상담요원 한 사람이 가임부부 30가정을 담당해 출산 기피 이유를 상담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해 알리는 것도 좋겠다"며 "한국교회가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성서화운동본부와 전남출산운동본부는 전남 도지사 및 목포시장과 저출산 극복 정책 간담회, 다자녀 출산 행복 잔치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김진영 기자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조배숙 의원(가운데)과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이영훈 목사, 저출산 대응 기여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정부,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인들을 대상으로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제13회 인구의 날'을 맞아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 노력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모란장) 표창 및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

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승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윤옥 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영훈 목사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며 포상 사유를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2년부터 출산장려운동을 펼쳐서 젊은 가정과 각 세대에 출산을 격려하고 출산을 위해 지원해왔다"며 "그러나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출산율은 떨어지고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이영훈 목사(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 이 목사 왼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어 "이 문제는 어느 한 교회만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위한 '고독사 제로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

소셜서비스 NGO인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와 인문학연구원 K-뷰티사이언스연구소(소장 최에스터 교수)는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과 함께 12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뷰티서비스 및 어르신 상담과 봉사활동 기회를 가졌다.

'고독사 제로를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 대해 주최 측은 "특별히 월드뷰티핸즈와 K-뷰

티사이언스연구소는 뷰티 전문분들과 함께 고독사예방상담 및 시 창작과 낭송시간을 갖고 위로와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장현일 이사장, 최에스터 학장, 장민혁 상임대표(WBH), 이화아 교수(정화예술대), 최세연 사무국장, 최세진 영양사, 조승희 미술치료사, 장민욱 상담사(충신대학원)를 비롯 최원희 강사, 이강학박사(자원봉사단원, 유지인 봉사자(BBC))가 참여했다.

월드뷰티핸즈는 매일 엘드림노인대학



밥퍼 자원봉사자들 ©해돋는마을

을 통해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며 삶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해돋는마을과 함께 매주 5회 밥퍼사역으로 섬겨오고 있다.

김진영 기자

MMF 자금운용 7년 연속 수탁고 업계 1위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고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고 1등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고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하나자산운용

* 이 금융투자상품은 해당자산의 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의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액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금과 해마다 이익에 투자대상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이익이 지급되며, 이익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익이 배분되며, 배분 시에는 정해진 비율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액의 원금은(간접투자증권에 해당) 원금에 충당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1Q와 1Q+에 해당되는 증권상장자산투자(예: 예금) 투자이익금. 총보수: 연 0.050% (이정평가: 0.007%, 집행투자: 0.039%, 수익배분: 0.005%, 사외관리보수: 0.005%) 증권거래세,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4-022172(2024.06.10) - 2025.06.09

오렌지한인교회 제9대 정유성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오랜 교회의 역사, '어제의 축복'을 안고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내일의 사명'으로 나아가길

오렌지한인교회 제9대 정유성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주일(7일), 별도의 예배 없이 주일 2부와 3부 연합예배 중 취임감사예배를 가진 교회는 축하 영상 메시지, 특별찬양, 꽃다발 증정, 축사 및 담사로 기쁨과 감사를 나눴다.

정유성 목사는 2002년부터 남가주사랑교회와 알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프뉴마워십을 창립해 이끌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덴버한인복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이후 2024년 6월부터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담임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왔다.

담회서기인 김두환 시무장로는 축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19일, 전임 담임목사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올해 6월 19일, 정유성 목사가 부임하시기까지 기간은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또한 이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었다. 모든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정유성 목사님을 제9대 담임목사님으로 보내주셨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묻어두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 교회의 앞날을 위해, 특별히 2세 3세 차세대들 위해 합심해 전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한다. 정유성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환영했다.

정유성 목사는 마지막 답사에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평안이 있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할 때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서 행복한 교회다. 앞으로 더 행복한 교회, 감사와 웃음이 그치지 않는 교회, 숫자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님들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한다.



정유성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감격과 감사를 전했다.

앞서 감사예배 순서에는 정유성 목사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다섯 명의 목회자들이 진심을 담은 축하메시지와 교회의 가장 젊은 그룹인 5구역 성도들이 정유성 목사가 작사, 작곡한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정유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 아시아처장)는 "지난 7-8년간 동역 하면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는 정유성 목사님께서 남가주에서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인 오렌지

한인교회에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교회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오늘 이 시점부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성령충만함으로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해 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본 교회 출신인 이재학 목사(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는 이번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정유성 목사가 오렌지한인교회에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며 "정 목사님과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을 갖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움으로 더욱 든든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성장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길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요 목사(알바인베델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은혜로 뚝뚝 뚝뚝 있는 목사라고 정유성 목사를 표현한 뒤, 함께 베델교회에서 사역할 때 작곡한 곡이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바로 오렌지한인교회 역사 속에 어제의 축복이 목사님과 더불어 내일의 사명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 시대 필요한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마음껏 사용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교제하며 지내온 송병일 목

사(덴버한인교회 담임)는 새로운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가 앞으로 더 뜨겁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 담임)는 "오렌지한인교회는 지난 50년 가까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공동체이다. 이런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정유성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세우주셨다"고 말한 후, "교회는 신령한 선택이자 진정한 안식처이고 천국의 모형이다. 지난 20년간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온 정유성 목사님은 인품과 영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 나갈 뿐 아니라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에 늘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 맡겨 주신 사역의 무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을 향한 영성, 주님의 겸손을 겸비한 목사님이기엔 잘 감당해 가실 것을 믿는다. 새로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통해 오렌지한인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도한다"고 축하했다.

김민선 기자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 드러내는 일 많아져야죠”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 시애틀 형제교회, 벨뷰사랑의교회 간증집회 인도



대중 광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평촌 새중앙교회 장로·사진)이 지난 7일,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와 벨뷰사랑의교회(담임 하성진 목사)에서 간증집회를 갖고,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2014년 설립된 복음의전함은 비영리기관으로 광고와 온라인전도 플랫폼 등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어떤 특정 단체나 교회 이름 없이 오직 복음의 메시지만 담은 광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복음의전함은 고정민 이사장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커진 현대에 어떻게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광고 캠페인으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전함을 설립했다. 광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는 일반 광고회사를 운영했고, 소니와 삼성 등 유명 기업체와 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의 달란트인 광고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회사인 '복음의전함'을 설립했다. 복음의전함은 언론 매체를 비롯해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 택시에 복음 광고를 붙였다. 또 마트와 신문, 전국의 광고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장소에 복음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광고를 처음 게시할 때만 해도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광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문의를 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간증 집회가 열린 벨뷰사랑의교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복음 광고를 해 화제가 됐으며, 또한 전도지를 만들어 50명 이하 한국 미자립교회에 무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200개 교회에 전도지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전도지를 영어, 헝가리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에게도 공급하고 있다. 복음의전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복음 광고 캠페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대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코로나 19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됐다"며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방해 못하고 영혼 구원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고 간증했다.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해질 수 있다"라며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크다' 혹은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반드시 쓰실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셨다"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한번 발견을 때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음의전함은 '블레스 USA'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블레스 USA는 한국에서 검증된 K-복음 콘텐츠인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을 활용해 200만 재미한인과 미국 전역을 전도하는 캠페인이다. 2만 명 재미 성도가 복음 명함 100장을 재미한인 200만 명에게 전해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우리는 킹덤 히어로”

시애틀비전교회 3세대 연합예배 및 야유회 개최

시애틀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는 지난 7일 3세대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하나 됨과 차세대 부흥을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한어권 성도들은 유스와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한목소리로 기도했고, 차세대도 부모 세대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킹덤 히어로”를 주제로 3세대가 함께 한 시애틀비전교회 연합예배 ©기독일보

설교는 유스 디렉터인 손민음 간사가 영어로 먼저 설교했고, 이후 고창훈 목사가 한국어로 설교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호세아 6: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고창훈 목사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했다. 또 1세대의 믿음과 하나님께 축복이 자녀세대들에게 전수되길 기도했다.

고창훈 목사는 "시애틀 비전교회의 전 세대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비전

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은 "킹덤 히어로" 티셔츠를 미리 맞춰 입었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실베레이크 공원에서 식사와 야유회를 가졌다.

야유회에는 바비큐와 신나는 게임 등이 마련됐으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도내이전 한 풍성한 선물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김민선 기자

자연
내림

구매 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솔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선교지 기독교대학, 매력적인 예수 공동체 되어야”

PAUA 제11차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
7월 11~1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선교지 대학들을 중심으로 교육선교의 흐름과 사례, 방향성과 전략을 나누는 파우아(PAUA) 제11차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청소년수련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018년 제10차 미주 대회 이후 6년 만에 열린 대회이자, 2011년 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된 제4차 대회 이후 한국에서 13년 만에 열린 대회다.

올해는 ‘선교지 대학의 미래와 방향성’이란 주제로 전 세계 선교지 대학 관계자, 교육선교 전문가 및 선교사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교육선교 상황과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교육선교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장이었다.

11일 김용욱 PAUA 감사의 사회로 시작한 컨퍼런스는 김홍주 온누리교회 2000 선교본부장의 개회기도, 장영백 PAUA 사무총장의 환영 및 소개 후 이재훈 온누리교회 위임목사,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황태영 새중앙교회 담임목사의 축사, 박명준 K대학 총장의 격려사, 김현호 테너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손봉호 PAUA 이사장은 이날 ‘교육선교와 교육선교신학에 대한 특강에서 “복음선교는 교육선교가 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교육으로 성공했고 교육자원이 풍부하며, 한류 영향과 한국인의 진취성 등으로 개발도상국을 교육으로 돕는 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조건은 하나님께 교육선교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지식, 기독교적 교육, 기독교적 인간학에 근거하여 교육선교신학을 정립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학권 아모레퍼시픽 차장의 간증 후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 3대 총장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선교지대학 정체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양 총장은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커리큘럼 운영, 학생 제자 훈련, 기독교적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가는 채널 운영, 교수들의 학술활동 등을 하고, 학교명이나 채널명 등 선교지 대학의 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양 총장은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대학과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날 저녁 이승주 PAUA 준비위원의 사회로 정세진 한양대 교수(PG)의 시작기도에 이어 김경연 P국 P대학 총장은 ‘창의적 접근지역 대학의 선교적 접근’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김 총장은 “선교의 출발점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하나님



제11차 교육선교 국제컨퍼런스가 1박 2일간 진행됐다.

의 선교”라며 “부르심으로 선입관을 돌파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재정을 보내주셨다. 확보된 인력과 재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장은 “선교지 대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어 매력적인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혁신적 기술과 재정만으로 학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학교를 움직인다”고 말했다.

둘째 날 한윤식 PAUA 이사의 사회로 중앙호 선교사(탄자니아 UAUT)의 시작기도에 이어 김성수 탄자니아 UAUT 총장이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도전과 교육선교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수 총장은 “코로나를 통해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바뀌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놀라웠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교직원 월급을 주고, 코로나 시기 온라인 강좌로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선교사들을 목회자로 양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선교지 기독교대학의 도전과 대응으로 △교권의 지배와 교회화의 유혹 △이질적 구성원, 빈약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대학과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 △학문의 내적 개혁에 대한 무관심 △빈약한 재정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소개했다. 교육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현직 교직원의 리더십 강화 △교직원 개발(훈련) 프로그램의 입안과 실시 △사제대 리더십 개발 △학생 복지 증진 △학과(전공)의 신설과 내실화 △취업 지도와 졸업생 관리 △정책 과목(기독교 세계관)의 정착 △부속 및 부설기관(유치원, 초중등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 등)의 활성화 △평신도 지도자 양성 △협동 사역 △규정 준수 등을 소개하고 “선교지 기독교대학은 모든 면에서 주변의 다른 대학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놀라웠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교직원 월급을 주고, 코로나 시기 온라인 강좌로

손원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교육선교의 흐름과 전략, 모범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희희 기자

‘창업과 교육선교’에 대한 특강에서 “선교지 창업에 도움을 줄 크리스천 글로벌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양성하고, 선교현장의 창업 대상과 창업 아이템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크리스천 엔젤투자자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실제 비즈니스 선교 훈련 사례와 BAM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남명현 PAUA 준비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오후 일정에서는 김성신 숭실대 IT대학 AI 융합학부 교수와 김기원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교수가 ‘생성형 AI와 선교적 활용’에 대한 특강을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기독교 세계관, 창의적 접근지역대학, 창업과 교육선교, AI시대와 교육선교에 대한 분과별 모임을 종합발표 후 이재훈 목사와의 초청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박창일 PAUA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저녁 일정은 강성택 국제교육선교개발원(GED) 원장의 파우아 GEI 소개, 김용수 교수지원단 단장의 파우아 교수지원단 소개, 박기호 미국 풀러신학대학교 교수의

‘선교지 기독교대학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

박기호 교수는 “리더십 개발은 선교지 기독교대학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선교지에서 지도자 개발을 위한 교육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자신의 리더십 개발에 힘을 뿐 아니라, 동료 사역자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교지 기독교대학에서 지도자들을 성공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며 “선교사들은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 선교사역의 주체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이어 헌신결사의 작성 및 헌금찬송, 기도, 합심기도 및 추기기도로 일정을 마쳤다. 이희희 기자

김병로 박사, 신간 ‘한국과 조선’ 출판

평화나눔재단·기독교통일포럼 공동주최 출판기념회 진행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한국과 조선의 민족국가 정체성을 연구한 신간 ‘한국과 조선: 남북한 정통성 경쟁’(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최근 출판했다.

한국과 조선은 1948년 분단 후 약 80년간,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민족국가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다른 국가 형식을 비롯하여 언어, 역사, 가치와 문화, 민족성, 국민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달라진 민족국가, 독립국가가 되었다.

김병로 박사는 이 책을 통해 통일코리아의 미래에 대해 “공존과 소통, 나아가 통합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남북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상호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으로서 최근 17년간 축적한 통일외교조사 자료를 인용해 남북 국민이 한반도와 남북, 통일에 대해 가진 생각을 객관화하고자 했다. 객관적인 지표로서 북한 주민의 통일외교도 소개한다.

이 책은 서장 ‘투코리아의 국가 건설’과 종장 ‘남북한 정통성 경쟁의 미래’ 외에 남북의 경쟁적인 국가건설 과정을 북태동기 ‘대한과 조선’ △냉전기 ‘남한과 북조선’ △탈냉전기 ‘한국과 조선’ △통일기 ‘대한조선’ 등 총 4부, 12장으로 구성했다. 특히 4부에서는 통일을 내다보며 남북한의 정체성이 어떻게 함께 만나고 변화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통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게 될 국호 통합 문제도 다룬다. 종장은 남북한이 서로의 경제, 사회, 민족, 문화자원을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동원해 나갈지 논의하고 전망한다.



출판기념회에서 김병로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독교통일포럼

김병로 박사는 책의 머리말에 “이질문화와 공존과 소통은 언제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역사가 늘 그랬듯이 그 도전과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며 통합해 나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창조와 도약의 기회가 놀라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처럼 한반도의 미래에 상호 간 평화로운 공존과 소통이 이

루어지려면, 그 첫걸음은 한국과 조선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한편, 평화나눔재단과 기독교통일포럼(CUF)은 지난 6일 서울 서초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2층에서 ‘한국과 조선’ 출판기념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병로 교수가 신간 내용을 소개했으며, 조기연 교

수(기독교통일포럼공동대표), 이수봉 교수(선교통일한국협회 사무총장), 임현만 교수(통일선교아카데미 원장), 정대진 교수(원주한라대학교), 최은영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숙 박사(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장)이 서평과 토크 순서를 맡았다. 이희희 기자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일반지원사업 심의일(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공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일반 지원을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조 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아주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일정 지급에 필요한 재원보충을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교도소 갇혔지만 나를 이 곳에 보내신 이유 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미국 뉴욕의 최고 보안등급 교도소에 수감된 한 인물이 복역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현지에서 7월 중 개봉한다.

존 ‘다바인 G’ 핏필드는 싱싱(Sing Sing)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동료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벽 너머의 삶을 준비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경험을 만들어냈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분이 나를 특별한 이유로 이곳에 두셨다고 100%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직 DJ, 작가, 배우인 다바인은 연극, 음악, 춤, 시각 예술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수감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RTA(Rehabilitation Through the Art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다바인 G는 예술이 재활과 개인적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RTA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것 중 하나는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야 했다. 우리의 전체 사명은 예술을 치유와 재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도구다. 그것이 정말 궁극적인 사명이었다”라고 말했다.

다바인 G의 리더십 하에 1996년 설립된 RTA 프로그램은 번성하여 다른 교정 시설로 영역을 확장하여 뉴욕 주 전역에 지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주립 교도소의 재범률은 평균 60%로 추산되지만 RTA 동문의 경우 이 비율은 2%에 가깝다.

다바인 G는 이 통계를 언급하면서 “꽤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예술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했다.

다바인 G의 이야기는 ‘싱싱(Sing Sing)’이라는 제목의 신작 영화 주제로, 다바인 G는 필름 도망고가 맡았다. RTA 프로그램 디렉터 역은 폴 레이시가 맡았다.

언어적 이유로 R등급을 받은 이 영화는 RTA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의 가능성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능력을 강조한다. 수감자들이 RTA에 참여하면서 셰익스피어 희곡,



©A24 Films

드라마, 심지어 코미디에 출연하면서 그들은 목적, 멘토십, 공동체 의식을 발견한다.

다바인G는 “교도소에는 구원의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변하고, 인간도 변한다. 교도소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건강하고, 온전하고,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회가 안

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프로그램은 안전 메커니즘”이라고 했다.

작가 겸 감독인 그렉 웨다르와 공동 작가인 클린트 벤틀리가 8년간 연구하고 작업한 결과물인 이 영화는 다바인 G가 교도소 변호사로 일하며 교도소 법률 도서관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다른 수감자의 법적 소송을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바인 G는 CP에 “신앙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면서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

가 했던 일은 그들에게 청원서, 영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며 “그들은 담배, 우표 등 교도소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은 나에게 한 푼도 빚진 게 없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이 종종 동료 수감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밖에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드는 법률 업무를 했고, 제가 요청한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뿐이었다”라며 “그것이 우리 환경에서 사랑을 전염시키는 제 방식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성경구절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반했다. 이 구절은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한다”라며 “용서보다 더 위대한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요소들을 모두 나열해 놓았지만, 사랑은 그 중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했다.

다바인 G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그 이후로 교도소 개혁과 재활에 예술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또한 여러 권의 책을 썼는

데, 그 중 일곱 권이 각색되어 영화로 만들어졌고, 전국 작가상을 다섯 번 수상했다.

그는 “모든 일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 내가 겪은 시련과 고난 - 정말 힘들었다 -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보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가 계속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방식이며,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바인 G는 자신의 이야기와 RTA 프로그램 성공이 재활과 예술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이 영화가 예술이 단순히 치유와 재활의 요소가 아니라 재범 수준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나라에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프로그램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허리케인 베릴, 美 텍사스 강타... 현지 교회들 지역주민 도와”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 해안을 강타하면서 휴스턴에 소재한 교회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조엘 오스틴이 담임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4백명 이상의 장애인 재향군인과 가족들에게 음식과 물을 전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수백여명이 레이크우드 콜링 센터를 방문했고, 4만병 이상의 생수가 드라이브 루에서 배부됐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구호품을 위해 음식과 물품을 옮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폭풍이 몰아치던 날, 지역 사회를 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교회는 “우리는 걸프 코스트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레이크우드는 비상 관리 사무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폭풍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라고 X를 통해 전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앞서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했을 때, 레이크우드 교회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교회는 건물에 침수돼 허리케인 대피민에게 안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가 지나간 후, 교회 관계자들은 도시의 주요 대피소가 수용 인원에 도달해 수백 명의 대피민을 수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

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냉장 및 물 분배 센터 역할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휴스턴에서 30분 거리 케이티의 교회들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고 CP는 전했다.

케이티 파워하우스 교회는 도움이 필

요한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물품을 제공했다.

구호단체 ‘YAIOP Outreach’는 현지 매체인 ‘폭스26’에 “우리는 재난구호 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들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하는 게 어때요?’라고 물었고, 그들은 ‘우리가 돕겠다’고 말했다”고 교회와의 협력 계기에 대해 전했다.

루카스라는 이름으로 확인된 한 남자는 이 매체에 자신의 가족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갔다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다. 축복이다”라고 말했다.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활동은 케이티 크리스천 미니스트리(Katy Christian Ministries)의 식품 저장실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다.

파워하우스 교회의 페르난도 크루즈는 “우리는 행동하라는 부름을 받으면 모두가 모여서 돕고 싶어한다”라며 “여기서 가장 큰 그림은 형제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독일·일본 정상 “한반도 긴장 우려...불안정해질 위험”

베를린서 정상회담...새 경제안보 협의 틀 신설 합의

독일과 일본 정상은 12일(현지시간) 북러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우려를 공유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새로운 협의 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공영 NHK, 독일 애드훅(adhoc)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올라프 쇼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약 40분 간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가 북한,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유럽대사양과 인도-태평양 안보는 불가분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중국이 수출입 규제 등으로 무역 상대국에게 가하는 경제적 위압을 염두에 두고 중요광물 공급망 구축, 반도체 기술 개발·생산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새 협의 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쇼츠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역이 더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독일군과 일본 자위대 간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물품·무역 상호제공 협정(ACSA)’이 12일 발효된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례없는 협력의 강함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국제사회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범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양국 협력과 연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담에서는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양국 간 연계협력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도 일본에서 조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예진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N°20 건강한 인사법



목례로 인사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전력을 다해 CASPER Electric



한 번 충전으로 3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
casper.hyundai.com에서 사전계약 중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플러스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멤버스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5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인스피레이션 (1.5inch): 복합 5.6km/kWh(도심:6.2km/kWh, 고속도로:4.9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315km(도심:347km, 고속도로:275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35kg | 등급: 소형 ▶ 인스피레이션 (1.7inch): 복합 5.2km/kWh(도심:5.7km/kWh, 고속도로:4.7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95km(도심:323km, 고속도로:262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55kg | 등급: 소형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에도 무사... 군중 1명 사망 2명 중상에 총격범 사살

사법 당국, 트럼프 암살 시도 조사 착수... AR 스타일 소총 회수 NY포스트 "암살 기도범은 20살의 토머스 매슈 크룩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13일(현지시간) 암살 시도 총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지만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도 비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미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전 대통령이 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미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 확실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로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사법 당국은 총격이 벌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집회 현장에서 AR 스타일의 소총 1정을 회수했다고 AP 통신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 선거 전영과 미 공

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이날 총격에도 불구하고,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 연설 중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 사법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굴에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에 이끌려 대피했고, 그의 선거운동 전영은 그가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피격 이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암살 시도로 대통령선거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집회 도중 암살 시도가 분명한 총격으로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불온 진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그는 곧바로 경호원들에 이끌려 대피했다. ©FOX 영상 캡처

불과 4개월 앞두고, 트럼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며칠 전 정치적 분위기가 심하게 양극화된 가운데 일어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극악무도한 행동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법 당국과 최초 대응자들에게 감사해 하고 있다. 그는 관창고, 지역 의료시설에서 검진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경호국도 성명을 통해 "전직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당시 미 국경을 통과하는 이주자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도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기 중인 SUV에 탑승하기까지 2분이 걸렸다. 첫 총성이 울렸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라며 귀에 오른손을 갖다 댔고, 두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귀를 잡고 웅크렸다. 뒤 이어 더 많은 총성이 울렸다. "몸을 낮춰"라고 외치는 소리가 계속됐고, 경호 요원들이 순식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대피시키기 시작했으며, 총격범을 쫓아나 분주한 모습이었다. 곧이어 군중들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총격범이 쓰러졌다"는 외침도 들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묻은 모습으로 대피하면서도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며 군중들로부터 "USA" "USA"라는 연호를 이끌어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 대해 브리핑 받고 "그(트럼프)가 무사해 감사하다. 정치 지도

자에 대한 폭력은 미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NN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같은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총격한 범인이 펜실베이니아 출신 20세 백인 남성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이외의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CNN 등은 전했다. 뉴욕포스트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남성이 이름이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고 전했다. AP 등 다른 언론들은 이 남성이 외국 정부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ABC는 "당시 총격범이 별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 당국이 DNA 등을 채취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수사 당국이 총격범의 신원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세진 박용국 기자

윤, "탈북민 포용은 북한인권 개선의 첫걸음" 강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97년 7월 14

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언급하며 이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3만 4천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험난한 탈북 과정을 지적했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 시도 중 목숨을 잃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 지뢰까지 설치하는 행위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탈북 동포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포용이 북한인권 개선의 첫걸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보며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 ©뉴시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초기 정착 지원금 개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탈북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와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복송되지 않도록 모

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꿈 이야기, 통일 다짐 발표, 남북 청소년 합창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청년, 문화예술인, 정부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고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직접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용국 기자

PRUGIO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 서초구 | 강남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백운호수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청계C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엑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생각지경 앞편엔 M+ 엠디엠플러스

대리사무실로서 KAIT 한국자산신탁

서울 대우건설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365일 식사서비스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하우스키핑 서비스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메디컬케어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올데이 클래스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총 536세대 1577-5052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부결 대비 '상설특검' 활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운영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결 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방송 출연에서 상설특검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요건이 까다로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나 국회 본

회의 의결로 가동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된 사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정점은 국회 추천 위원 4명의 구성 방식이다. 현재는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이 그 가족이 피의자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美인태사령관,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 가능성 언급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사진)이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하와이 하잡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

급했다. 그는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발언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 재배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자신이 제안한 '자옥도(Hellscape)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계획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드론 부

대를 활용해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를 "21세기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했다. 한국산 유도로켓 비공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파파로 사령관은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동맹에 이익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태사령관 방문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 해군의 림팩 참가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박용국 기자

한국 출산율 0.72명, OECD “세계 최저” 우려

4월 출생아 수 소폭 증가에도 누적 출생아 수 여전히 최저... 정부와 OECD, 대책 마련 촉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OECD는 최근 한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분석·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3배, 손주 세대보다 9배 많은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04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521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세다. 이러한 소폭 증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연된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7만 9523명으로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낮은 수치다.

한편, 대구와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혼인 지원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이면서 4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4.6%(4565건) 증가한 1만 8039건을 기록했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크게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확대,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공공육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출산·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OECD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의 경제적 지위 약화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코엔 실장은 “임금자리와 비, 사회적 보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노동시장 이중성의 문제로 청년의 경제적 지위가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향후 한국의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정부의 저출생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내라 기자

기재부, 국가채무 증가 대응 위한 지출 구조조정 착수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본격 나섰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개혁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4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 91조 6000억 원의 81%에 도달했다. 나랏빚은 1년 전과 비교해 54조 원이나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건전화 방안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재원투입 우선순위 결정 및 지출 구조조정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의 국민소득, 고령화율, 출산율, 국가채무 비율 등 경제·사회·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시점의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거시경제 지표, 노동시장 및 교육 등 국가별 각종 경제·사회 지표 수집을 바탕으로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과 재정지출의 특징 비교·분석도 진행한다. 지출 구조조정, 연금·보험개혁 등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 재정지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변화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연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기관 선정 및 계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재원투입 우선순위 및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내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 공여 혐의 1심서 징역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1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 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스마트폰 비용과 도시사 방북비 명목으로 394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점,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 허가 없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을 부정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액수는 뇌물 1억 7000여만 원, 정치자금 2억 1800여만 원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린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내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자영업자·알바생 반응 엇갈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며 우려를 표하는 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불황 속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결국 사람 쓰지 말라는 건데, 이걸 자영업자를 죽이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의 카페 운영자 홍산씨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노동계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나 홀로 사장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모씨는 “현행 최저임금은 외식 한 번 하기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식당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한모씨는 “최저임금이 1시간 일을 하면 밥 한 끼는 배부르게 사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드카페에서 일하는 김병찬 씨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좋지만, 자영업자는 죽어가는 거 아니냐”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엇갈린 반응은 경제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와 사회 각계의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내라 기자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대상 2차 불시점검 예고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하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

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별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단지였다. 이번 2차 점검에서도 3~4개월 이내 준공을 앞둔 신축 단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점검에서는 전국 23개 단지에서 1000여건의 하자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름철 점검계획은 있으나 세부 일정 및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와 올해 초 불거진 아파트 하자 및 부실시공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시 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건설 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부의 구체적인 점검 계획과 일정이 공개되면, 건설사들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예정자들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내라 기자

K-eco
with
ESG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아프리카 교회에 만연한 거짓 복음은 이것”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전도 사역자인 오스카 아마에치나(Oscar Amaechina)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아프리카 교회의 거짓 복음”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며 변영 복음에 대해 경고했다.

오스카 아마에치나 목사는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아프리카미션&복음주의네트워크’(Afri-Mission and Evangelism Network, AMEN)의 회장이다.

아마에치나는 칼럼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아프리카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원래 기독교는 사후에 개인적인 구원을 약속했고, 그 당시 그리스도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삶을 고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가족을 떠나 집의 안락함과 고국의 모든 사치품을 포기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첫 세대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된 사명감

을 받았다”며 “1857년, 선교 여행을 위해 시에라리온을 떠나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오니차로 간 이그보족 노예인 존 크리스토퍼 테일러(John Christopher Taylor) 목사는 모든 아프리카 기독교인에게 함께 모여 은수그베 주민들을 구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부르심은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졌으며, 그 때 성경 복음이 처음 전파되고 믿어졌다. 존 크리스토퍼 목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고통과 핍박과 좌절 속에서 수고하며, 은수그베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다”며 “복음 전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러한 추세는 수세기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제자로 생겨났다”고 했다.

아마에치나는 “변영 복음(Prosperity Gospel)은 이후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퍼졌으며, 오순절파와 복음주의 교단에 침투했다. 가난, 인간 타락, 약한 통치와 부패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Gracious Adebayo/ Unsplash.com

아프리카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약속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오늘날에 정통 교회에서도 번성하고 있다”며 “신약학자인 고든 피(Gordon Fee)는 변영 복음을 ‘복음의 성격이 거의 사라진 음흉한 질병’으로 묘사했다”고 했다.

그는 “이 질병은 현재 특정 요인들로 인해 아프리카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예배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변영 복음은 그들이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한다”며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예배자들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아낌없이 기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가난해졌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에 가서 받은 많은 가짜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오스카 아마에치나(Oscar Amaechina) 목사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변영 복음은 아프리카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이지리아의 대다수 대형 교회들은 변영 복음 설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 설교자들의 아우라와 지적 능력, 웅변 능력과 카리스마는 확실하며, 그들의 주장은 거의 무적에 가깝게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가 종교와 전통이 다산과 풍요, 부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의 징후로 인정하면서, 아프리카의 세계관을 자신들의 설교에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손상되었다”며 “상당수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이제 복음의 힘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지상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에치나는 “서구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르다.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초대 선교사들과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선조들은 진정한 복음을 보존하려고 힘써왔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넘겨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고, 그들이 섬긴 주님께 배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美버지니아 주지사, 교내 핸드폰 사용 금지 행정명령 발표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행정명령 33호는 버지니아 교육부에 휴대전화 없는 공립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버지니아의 K-12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없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없는 교육은 학생들이 부모의 감독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하루 평균 48시간을 소비하는 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하루 3시간 이상을 보내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립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기대와 조치”가 이루어졌다.

명령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의 산만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함을 넘어선다”며 “과도한 휴대전화 및 소셜 미디어 사용은 청소년의 집중력과 학업 참여 능력에 누적되고 지속적이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영킨 주지사는 9일 성명에서 이 명령이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보다 건강하고 집중적인 교육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킨은 “오늘의 행정명령은 학생들이 중독성 있는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실에서 명백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분명한 목표를 둔다”며



©freestocks/ Unsplash.com

“지역 차원에서 이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학부모, 학생, 교사, 학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 간의 활발한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광범위한 스마트폰 사용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노출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글로벌 공중보건학과 학과장인 데비 스리다르 교수는 최근 가디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장시간 동안의 화면 사용과 특정 소셜 미디어 경험은 특히 어린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리다르는 “전문가들은 지난 2010년부터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증가에 있어 스마트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왔다”라며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 발생률이 가속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거의 10년 전부터 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내년부터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유진 기자

‘리버풀 111골’ 축구선수 호베르투 피르미누, 목사 안수 받아

영국 ‘더 선’은 9일(이하 한국시간) 리버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경험에 있는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목사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르미누는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 마세이우의 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은 장소는 피르미누와 그의 아내 라리사 페레이라가 함께 설립한 교회다. 목사 안수식은 지난 6월 30일에 진행됐다.

피르미누는 자신의 SNS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의 만남 이후로, 우리의 가슴에 그리움이 타올랐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협력하는 목사가 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피르미누는 2015-16시즌 리버풀에 입단해 이 구단에서 2022-23시즌까지 362경기를 뛰며 111골 75도움을 기록한 월드컵 클래스 공격수다. 2018-19시즌 UCL



목사 안수를 받고 감격해하고 있는 호베르투 피르미누. ©피르미누 인스타그램

에서 팀 우승을 경험했다. 2019-20시즌에는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피르미누는 리버풀을 떠난 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 리그 알 아흘리에 합류해 지난 시즌 리그 9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형구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신용회생 제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신사업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대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교회를 살리는 길: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신학적 안목 II



김재성 교수
전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렘브란트와 고흐의 비극적인 생애
네델란드의 교회가 무너진 모습은 두 화가의 몰락과 거의 비슷하다. 네델란드가 전세계에 자랑하는 두 화가는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이다. 그들은 화가로서 예술적인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지만, 개인적인 인생은 몰락하고 말았다. 사람도, 사회도 모두 변질되어 몰락한 것처럼, 교회들도 역시 성경을 벗어난 신학에 물들게 되면 무너지고 만다. 필자는 네델란드가 사랑하는 두 화가의 비극적인 인생이나, 네델란드 교회가 폐쇄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들 두 천재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고자 암스테르담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두 명의 걸출한 화가의 전시실이 불과 30분 거리에 있어서, 편리하게 두 곳을 돌아볼 수 있다.

“돌아온 탕자”와 “야경”을 그린 렘브란트의 미술관은 국가 최고의 전시실이다.

그는 빛의 화가였다. 아동과의 대조를 통해서 살아있는 듯한 광경을 그려냈다. 그의 탁월한 솜씨는 당대에 유명한 화가로 인정을 받게 충분했다. 그는 개신교회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그렸다. 그의 그림들은 해외 무역에 기회가 열리면서, 갑자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신승귀족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려나갔다. 당시 왕실과 부유층들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고가의 수장품들을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동양과 아랍문명의 진귀한 물품들은 왕궁과 귀족들의 장식장을 꾸몄다.

렘브란트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너무나 큰 집을 매입했는데, 과도한 확장장과 소장품들로 꾸몄다. 그는 진귀한 예술품들, 고대 유물들, 골동품들, 메달들, 해상식품 등 감당키 어려운 물건들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재정상 파산했다. 행복하게 살던 집도, 아들도 잃었고,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에서 구걸하다가 생애를 마쳤다. 하나님의 품에 갓을 때에, 아마도 그가 그린 불멸의 그림처럼,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더 슬픈 주인공은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다. 그의 그림들 중에서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등 모두

다 강렬한 빛과 터치가 눈으로 파고들어 온다. 전세계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과 비극적인 생애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의 생애 동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 정말 단 한 점만 팔렸다는 것이 사실인가? 빈센트는 결혼도 실패했고, 작품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와도 결별했다. 네델란드를 떠나서 파리와 플랑드르 지방을 전전했고, 끝내는 프랑스 남부 아를에서 37세에 자살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개혁 교회의 목회자로 시골 목회에서 헌신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개혁신학의 자부심을 갖고서 오직 성경만을 따르려 했던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작품을 더 칭송했으니, 빈센트가 품은 사상은 극한 혼돈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신 세계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그의 동생 테오도르 부부와 조카의 수고로 많은 그림들이 보존되어서, 사후에도 천재의 색깔이 인정받고 있다.

렘브란트와 고흐의 개인적인 슬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심령에는 어둠이 있을 뿐이다. 화가로서의 성공이라는 것도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

이다.

◆다른 복음과 변질된 신학을 분별하자
그렇다면, 교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오늘날 유럽 사회의 세속화와 극단적인 쾌락주의, 무신론에 근거하는 이기적인 타락현상들은 사탄의 계략에서 나온 것들이다. 영적인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몰락시키려는 자들은 자율적인 의지를 작동하고 부추기는 자들이 그런 세력의 하수인들이다.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의심을 불러 넣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급기야 교회의 분열화 혼돈을 부채질한 자들은 소위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라고 알려진 신학자들이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 신학자들이 교회를 초토화 시켰다. 그중에서도 루돌프 볼트만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1930년대 독일 루터파 교회의 변질에 책임이 크다. 그는 기독교의 비신화화를 주장하여 유명해졌다. 볼트만은 부활이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 박사 과정을 마친 린네만 교수는 이것은 성경 해석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다고 강

력히 비판했다. 자신을 세뇌시킨 볼트만의 결정적인 문체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역사성을 비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성경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볼트만의 신약적 권위에 의존하면서,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독일교회는 히틀러의 독재하에서 강연하던 것을 잊을 수 없다. 필자의 책,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에 부록으로 그녀의 고백을 게재한 바 있다.

독일 철학자 니이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 속에서, “신은 죽었다”고 떠들었다. 그러자 이를 받아서 “신의 죽음을 주장하는 신학”, 소위 “사신신학”이 등장하였다. 알타이저, 로빈슨, 해밀턴 등이 급진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초토화 시켰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참화 속에서 신음하던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이처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혼돈스러운 주장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의심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 있던 교회의 기존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내렸다. 현대 교회가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저명하다는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파괴하고자 내놓은 “전혀 다른 복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했다 (갈 1:8-9)

21세기 한국교회 앞에 던져진 당면과제는 국가소멸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세계교회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훼손시킨 현대의 급진적 신학이 아직도 진짜 복음인양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다. 다만 필자가 크게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각종 유튜브 강자들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서 옥도를 망치고 있는 현상들이다. 양의 탈을 쓴 목자도 있고, 천사를 가장한 사탄도 많다. 가짜 물건은 진짜처럼 보여서, 걸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진면목을 알 수 있듯이, 부디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메시지들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를 철저히 파헤쳐서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과연 신학적 토대가 성경적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한다.

‘견미단’ 미래 지도자로 방미 역사탐방



최선 박사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고립되었고 세계의 흐름에 눈과 귀를 닫았다. 그 결과로 조선 말기는 통상무역을 하려는 대국들의 압력과 군사적 침략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결국 조선은 1882년 조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개방의 물꼬를 열었다. 다음해 고종은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대표단의 공식 이름은 ‘보방사절단’, 또 다른 이름 ‘견미단’으로 불렸다.

견미단은 1883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로 시카고를 경유하여 워싱턴DC, 뉴욕, 보스턴까지의 대장정으로 소방서,

학교, 기업, 행정기관, 미 대통령과 정치인 조우하는 등 미국을 탐방하였다. 이들의 방미는 조선 말기의 개화 과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볼티모어 기차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평소에도 동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존 가우처 목사는 견미단을 발견하고 통역을 대동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조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만남으로 가우처 목사는 ‘은둔의 왕국’ 조선에 입국하는 것과 기독교 정산에 입각한 근대 자유 문명 유입의 물꼬를 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가우처 목사는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보냈다. 결국 맥클레이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가우처 목사의 후원으로 조선으로 무사히 입국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종을 만나 미국



최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견미단 미국 역사탐방 발대식이 열렸다. ©주최 측 제공

의료인과 교육인의 조선 입국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다.

위와 같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드디어 1884년에 호러스 알렌과 1885년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매리 스크랜튼 선교사 등이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견미단의 방미를 통해 동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가우처 목사를

대식 배재학당과 독립신문사 등을 출범 시켰다. 그 열매로 기독교 복음과 개화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에서 자유의 개념을 배우며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였다.

2024 견미단의 방미를 위하여 7월 6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역사탐방은 1776년 미국의 건국 정신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이어지는 독립정신과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와 기둥을 세우는 견학이 될 것이다. 기독교 정산에 입각한 근대 한국의 자유와 독립사상이 태동하는 현장을 밟으며 역사적 의미를 고취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초대 및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 방미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10대 청소년과 20, 30대 청년 50명이 단장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대표), 부단장 손영광 교수(바른청년연합 대표)와 함께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역사탐방을 떠난다.

주요 탐방지로 하와이에서는 한인기독교회, 오아후 공동묘지, 호놀룰루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진주만 기념공원, 애리조나호와 미주리호, 칼리퍼 조중학교 (한인기독교학원 터), 마우나리 요양원 등을 방문한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하버드대학교, 메이플라워호, 플리머스, 필그림파더스 기념탑을 둘러보고, 뉴욕에서는 컬럼비아대학교, 맨해튼 영웅들의 끝자기를, 아울러 프린스턴에서는 프린스턴대학교 등을 견학한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태산 묘지, 크라이스트처치, 리버티벨, 인디펜던스홀(독립기념관), 리틀시어터, 에나폴리스에서는 메릴랜드 주의회, 워싱턴DC, 링컨 메모리얼, 한국전쟁기념공원, 아메리칸대학교 이승만 뱃사람 등을 찾아 볼 예정이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독립 역사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 외교 및 역사의 흔적을 탐방하면서 자유대한민국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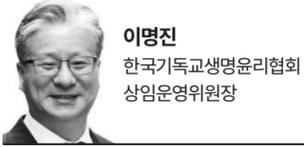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세속주의 성경관과 생명윤리(1)

[크리스천과 생명윤리] 생명윤리를 무너뜨린 독일 신학사조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세속화된 신학과 독일의 인종 학살

고대부터 생명 존중 문화가 있어 왔지만, 생명윤리에 대한 전 인류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다. 뉘른베르그 전법재판을 통해 독일의 인체실험과 아우스비츠의 대량학살의 진모가 알려지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자는 약속을 하게 된다. 온 인류는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뉘른베르그 조약을 맺게 된다.

독일이 인체실험과 인종 학살로 생명 윤리를 무너뜨린 지면에는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역할을 하고 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 철학 사조가 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사회적 개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이성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종교의 영역까지 분석하고 재단하려는 사조가 고개를 들고 시작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깎을 티운 위험한 이성 중심의 신학 사조가 세상 철학 사조의 흐름에 편승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철학 사조가 독일 신학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신학 사조로 계몽주의 신학, 낭만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고등비평과 신정통주의 등이다. 이들 19세기 독일 신학 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성경의 무오성을 의심하는 세속주의 성경관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속화된 성경관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상황윤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행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을 유물론적 사고로 바라보게 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주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미끄러운 경사길로 내몰았다.

◆철학 사조와 계를 같이한 독일의 신학 사조

계몽주의 신학은 18세기 후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초까지 지속된 신학 사조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주장한 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다. 초자연적인 요소를 부인하고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도덕적 삶을 중시했다. 결국 신학은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는 역할

로 축소되었다. 전통적 교리와 신앙을 부인하고 재해석하면서,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낭만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발전했다. 프리드리히 셸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가 주요 인물이다. 감정과 개인적 신앙 경험을 강조하며, 신앙은 이성보다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신앙 체험과 종교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꼬를 활짝 열게 된다.

자유주의 신학은 18세기 계몽주의와 과학적 발전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다. 알브레히트 리츨(Albrecht Ritschl),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 주요 인물이다. 성경을 역사적, 비평적으로 분석하며, 종교와 이성을 자의적으로 조화시키려 했다. 성경의 구원관보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 해석에 도전하고 있다.

고등비평(Higher Criticism)은 문학에 적용하던 비평 양식을 성경에 적용하여 성경을 문학적,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성경 텍스트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하며, 성경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제시하며, 자유주의 신학과 맞물려 기존의 보수적인 신학에 도전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고 여러 문서를 합쳐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문서설). 그리스어로 "함께 보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복음) 저자들이 저자들의 관점과 목적에 맞게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편집비평) 또한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의 부활과 같은 사건들의 역사적 증거를 부인하고, 고고학적 발견과 비교하여 성경의 역사성을 평가하면서, 성경의 서술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을 주장한다(역사비평)

고등비평은 성경을 보다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문서로 이해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 주장을 부정한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기보다는 비판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게 한다. 현대 교회의 세속화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신정통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했다. 칼 바르트(Karl Barth)가 주요 인물이다.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중심적 경향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을 단지 문학적 문서로 취급하고, 신화나 교훈적인 비유로 해석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과 전통적인 해석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여게 된다.

독일의 이러한 신학 사조는 당시 독일로 유학을 온 여러 나라 신학자에 의해 퍼져간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찰스 브릭스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미국 보수주의 신학 사조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멜서스와 헤겔

멜서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인구 과잉과 식량 부족이 발생하여 기근, 질병, 전쟁 등으로 인구가 조절된다고 보았다. 멜서스의 이론은 이후 특정 어 헤겔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아 살해도 가능하며, 인위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치료 불능의 정신병자나 암 환자들을 제거하는 것도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아 살해와 안락사를 정당화했으며,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 역시 공동체의 질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생물학적 질이 유전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세속화된 신학 사조의 결정적인 획을 그은 사람이 변증법을 주장한 헤겔이다.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헤겔의 철학 사조는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헤겔은 다윈의 진화론을 읽은 후 자연에서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가 사회에서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이끌었다. 19세기에 진화론을 받아들인 독일은 집단적인 국가 지배 이념으로 사회 진화론을 더욱 발전시킨다.

멜서스 이론과 함께 사회 다윈주의는 독일 우생학의 근거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독일의 인종청소와 집단학살, 인체실험 등을 정당화하는 광기의 역사 근거에는 철학과 신학의 타락이 있었다. 신학의 타락은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우생학이다.

◆헤겔과 독일 인종우생

생물학 교수였던 헤겔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난 뒤 곧바로 진화론의 지지자가 된다. 헤겔은 인간 의지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논제가 진화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란시스 쉼퍼는 헤겔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헤겔은 열등한 유전적 행동이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민족의 생물학적 질이 퇴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인종 위생은 원래 생의학적 차원에서 건강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다윈주의로 발전시킨 헤겔에 의해 발전 확대되어 국가 이념으로 수용되면서 강제 불임 수술, 안락사, 집단학살로 변해갔다.

헤겔은 모든 인종을 10단계로 분류하고 최상위에 코카서스 인종을 배치했다. 독일은 헤겔의 인종 분류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가지고 인종 간에 차별을 당연시했다. 결국 헤겔의 주장은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심지어 헤겔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아 살해도 가능하며, 인위적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치료 불능의 정신병자나 암 환자들을 제거하는 것도 이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아 살해와 안락사를 정당화했으며,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를 사형하는 것 역시 공동체의 질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생물학적 질이 유전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없는 독일의 추락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동안 저지른 반인륜적인 인종학살과 인체실험에 대한 흑독한 재판과 반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타락한 신학 사조와 세속주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생명윤리의 타락에 이어 성윤리의 타락 현상을 보이게 된다. 독일은 1961년 피압박을 허용하고, 1969년에는 동성애를 부분적으로 합법화와 이혼을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한다.

그 결과 유채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1973년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1976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1977년에는 무책주의 이혼을 허용했으며, 1994년에는 동성애를 완전합법화했다. 2001년에는 매춘업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시민결합법을 제정했다. 2017년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9년에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의 끝없는 추락을 보고있다. 독일 신학이 철학 사조를 옷 입고 자유주의 신학에 몸을 맡긴 결과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다. 작은 틈이 큰 독을 무너뜨린 것이다.

겪어봐야 안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을 지녀드립니다. 하나님을 열만큼 의지하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열만큼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기 위해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에 있어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믿음의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갑작스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잠시 자동차를 렌트했습니다. 하루는 파주에 있는 친구 내외를 만나 오랜만의 반가운 교제를 하고, 서울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천데 났친 격으로 차의 오른쪽 전조등이 나갔습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 그제 앞에 가는 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서울로 완전히 들어와 숙소를 잡는 것이었는데, 근처의 가까운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숙소 도착하기까지 20분 정도의 짧은 운전 시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간이었습니. 절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의 차를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 그리고 마침내 숙소 도착했을 때는 "가깝고 좋은 숙소에 머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거나, 문제의 산을 무사히 넘어갔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격하며, 두근두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은 미혹, 유혹을 겪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미혹과 유혹이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우

리가 어느 정도 거룩함이 배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똑 같은 유혹에 사로잡혀 절제함 없이 살다가 또 다시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과 다를 바 없이 신앙에 성장이 없는 제자리 곰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 중에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선정적인 말이 오갈 때, 믿음의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을 섞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게 됩니다. 들은 이야기를 못들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날 때,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한달 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개인이 여유를 느끼는 사적 공간이 극히 협소한 나라입니다. 인구대비 영토가 좁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부딪치고, 이해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원에 가서 잠시 혈압기에서 혈압을 재도, 옆에 있던 전혀 모르는 분이 "혈압이 좀 높게 나오셨네요"라고 참견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지인들도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조언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에서 사역한다면, 정말 운운하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한국의 국민들처럼, 참에 하게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열기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개인주의를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서 별 간섭없이 조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하였습니.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겪어보아야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찬양할 때의 내 모습은 포장된,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거룩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고운을 얻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신약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마 5:13), 세상의 빛(마 5:14), 그리스도의 종(고전 7:22),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 그리스도의 사신(고후 5:20), 그리스도의 병사(딤후 2:3), 그리스도의 항기(고후 2:15)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채로운 표현들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존재를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세상에서 그 존재와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키워리는 세가 있습니다. 나는 범을 잊어버린 새이다 보니 새라고 부르기도 뭐합니다. 날개는 퇴화하여 없어지고 굵은 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합니다. 키워리는 새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새입니다. 창공을 가르며 활공하는 다른 새들처럼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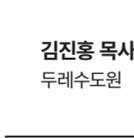
지 못하는 키워리 형편이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신세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키워리처럼 흐려진 영안으로 진위를 가늠하지 못한 채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이 세상을 뒤뚱거리며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제 이름값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값 혹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에 걸맞게 인식하고 그 자격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누구나 제 이름값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름값이란 세상에 알려진 상태나 정도에 맞는 노력이나 됴됨이를 일컫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쓰는 "이름값도 못한다" 혹은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름이 본래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그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턱없이 못 미쳐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퇴색시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실상이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종, 편지, 사신, 병사와 항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들입니다. 그 이름값대로 살지 않으면 무

익한 종이 되고,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채 발신인에게 되돌아온 편지가 되고, 자신을 파송한 왕이나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무능한 사신이 되며, 제대로 전쟁 한 번 치르지도 못하고 백기 드는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짠 맛을 잃고서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어둠에 갇혀서 발하지 못하는 빛처럼 이 세상에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마 5:13).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각각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사신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던 이들이 있다면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그들이지만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어 신앙은 깊고 기쁨은 웅대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름값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맞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 둘 세워질 때 세상이 갖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질서는 이 땅에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새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쉼내려 가시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보좌 앞에 네 생물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요한계시록에는 두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입니다. 땅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24 보좌가 있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제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아제 글에서 사자와 송아지에 대하여는 적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생물인 사람과 네 번째 생물인 독수리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4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성, humanity에 대하여 가장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 장에서는 예수께서 자라시던 시절의 이야기가 2 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사람이신 예수를 강조하는 복음인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4 생물 중에 독수리가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생물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중에 왕이기에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없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됩니다.

社說

‘이승만 기념관’에 만족 거는 불교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태평양 국립 묘지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미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하와이 방문 이틀째인 9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회를 방문, 하와이 동포들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내외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길에 하와이의 태평양 국립묘지와 한인기독교회 등을 찾은 건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우선 1949년 조성된 태평양 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 대전, 베트남 참전 용사들과 함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이런 곳에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가 자유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예를 표한 것이다.

김 여사의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방문 또한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적 산실이라는 상징성을 띤 곳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1918년 12월 23일 일제의 강압을 피해 하와이로 온 이승만은 한인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한인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교인 중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될 만큼 해외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교회를 많은 국민이 주목하게 된 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애국애족 정신을 담은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 돌풍을 일으키면서부터일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이 교회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을 설치한 것과도 연결이 된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 국립묘지 참배 이후 하와이 장제계 동포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애족 정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3년 하와이에서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것도 바로 이곳"이라고 강조했다.

한인기독교회는 하와이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지나가다가 유심히 봤을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경복궁 광화문을 그대로 빼다 박았기 때문이다. 외관보다 중요한 건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민족교회라는 특집담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지원한 각종 시료와 당시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조명하기에 한참 못 미친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고, 대통령에서 하야한 후 다시 이곳에 와 말년을 보낸 유서깊은 곳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주춧돌을 놓은 인물의 역사를 보여주기에 지리적으로도 멀고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가 자발적으로 이

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 후보지로 송현복지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난데없이 불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이 1954년 대처승 등을 사찰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한 '정화유서'로 인해 불교계에 갈등을 유발시킨 인물이란 게 반대의 사유로 거론된다. 조계사가 지난 2월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 이어 태고종 총무원도 지난 12월 송현복지공원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종단 공식입장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대통령 재직 당시 기독교세 확장을 위해 불교를 억압했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가 기념관 후보지로 생각하는 송현복지공장 인근에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하고 불과 200m 거리에 조계사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불편한 심기가 아주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열린 송현광장은 서울광장 세 배 크기의 광활한 녹지공간으로 이승만 기념관은 면적이 전체에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이 광장 동쪽에 고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이 전시되는 미술관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초대 대통령의 종교 색채를 문제 삼아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처럼 일고 있는 국민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식산은행 사택이었던 송현광장은 8.15 광복 후 미군-미 대사관 속속으로 활용되다가 1997년 정부에 반환됐다. 이후 높이 4m 담장에 둘러싸인 채 방치됐다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2022년 7월부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된 곳이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고 토지개혁 등 각종 사회 개혁을 단행했으며,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굳건히 지킨 인물의 기념관 하나 세우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공과 과가 뚜렷한 지도자다. 안타까운 건 그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집권 말기에 저지른 과가 그 모든 공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가져다 준 내비효과가 바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겠나.

불교계의 불편한 심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 갈 때 과거에 발목 잡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종교색채를 문제 삼아 탄압을 가하는 건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종교계가 반대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기로 자처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능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한성 감옥, 우리 민족의 골고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0)

이 호 목사
거룩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

제2장 한성감옥, 그 생지옥에서 만난 하나님

한성 감옥, 우리 민족의 골고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엄청난 독서량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되었다. 탁월한 영어 실력을 쌓았고 학교를 개설하고 도서관을 설치했으며 '독립정신'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을 저술했다.

다른 사람이 평생 한 가지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모두 이루어낸 곳은 감옥이었다. 감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감옥에서 이승만은 누구를 무엇을 만났을까?

첫째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 허문도(許文道)는 이승만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맹자가 설교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큰 지도자를 있게 하기 위해 하늘이 과하다는 연마 과정에 이승만의 일생은 너무도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준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대임(大任)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뇌하게 하고, 그 살과 뼈를 고달롭게 하며, 그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곤궁하게 하며, 또한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뒤떨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타고난 성정(性情)을 강인하게 만들며, 그의 부족한 점을 키워주는 것이다.”

감옥에는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한 큰 고난이 있었다.

둘째로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승만을 만나 주셨다. 고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던 것이다. 이승만도 그 점을 깨달았다. 1903년 9월 <신학월보>에 실린 “두 가지 편백담”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히 여기는 중에 한 가지 가장 간절히 감사하게 여기는 바는 다만 하나님의 교가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하찮고 괴롭고 악하고 우환(憂患) 고초(苦楚)가 있는 곳마다 특별한 효험이 되는 일이라.

나는 이것을 가장 감사히 여기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다 지극

히 좋고 지극히 간절한 줄로 믿되, 그 중에 더욱 간절히 감동되는 것은 세상에 환자가 있는 고로 의원(醫員)이 쓸 데가 있느니라 하심이라. 이것은 다 사람의 개인의 뜻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으로 믿을 지라.

이러므로 사람의 극히 어려운 지경은 곧 하나님이 감화시킬 기화라 하나니, 예컨대 눈에 물이 마르고 뜨거워 고기가 살 수 없게 된 후에야 스스로 새 물길을 얻어 강과 바다를 찾아갈지라.. 대한 사람들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라.”

셋째로 민족을 향한 희망이 있었다. 고난 속에서 이승만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을 만나 주실 수 있다. 고난이 있어서 이승만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승만은 믿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이승만은 민족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전개했다. 1908년 6월 15일 피츠버그 기독교 대회에서 행한 연설의 기록이 남아있다.

“자기들의 나라가 떨어질 데로 떨어진 아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들어 올려 줄 어떤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슨 힘도 그들을 들어 올려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씩씩했던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과 힘은 갱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자나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다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셔서 한국 사람들이 민족적 오만과 조상 숭배와 전래의 미신을 버리고 빈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은 이승만에게 큰 인물이 되도록 연단 받는 큰 기회였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넷째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고난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 훗날 정치가, 외교관, 교육자로 다양하게 활동했던 이승만은 감옥에서 평생의 동지들을 만났다.

미국 유학을 떠날 때 감옥의 부사장 이종진이 여비를 대주었다. 하와이를 독립



이승만의 한성감옥 시절(첫번째) ©위키백과

운동의 근거지로 삼도록 박용만이 충고했다. 한성 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추대하여 훗날 임시 정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놓아준 이는 이상재였다. 그들은 모두 한성 감옥에서 만난 '복당 동지'들이었다.

이는 성서의 요셉을 연상케 한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파라오의 고관을 통해서 훗날 총리가 될 기회를 잡는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혜로운 정책을 펼치므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7년 대기근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승만 역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유학, 하와이 정착, 임시 정부 대통령 취임을 도와주었다. 그들이 독립 운동의 동료가 되었고 건국의 동지가 되었다. 이승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 공산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인맥이 한성 감옥에서 맺어졌다. 그들은 진정 “복당 동지(福堂同志)”들이었다.

다섯째로 그곳에 '국민(國民)'이 있었다. 독립협회 회장을 지낸 윤치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다니,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임금이 그렇듯이 국민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윤치호만의 의견은 아니었다. 멸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의 무능과 못남을 지적하는 글들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승만은 백성들

을 향한 사랑을 품었다. 그가 감옥에서 쓴 글이다.

“저 순한 인민이 다 죄가 있어 멸망에 들어감이 어찌 어지신 하나님의 슬피 여가심이 아니리오. 이에 구원할 길을 열어 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천도(天道)의 요묘한 이치를 드러내고..

필경은 세상 인민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사 천만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말아서 용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소서나니 순전히 사랑함이 아니라면 어찌 남을 위하여 목숨 버리게 이르리오.”

이 글은 이승만의 애민(愛民) 정신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보여주셨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의 무능과 무지를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시해서도 안 된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이승만이 일생을 쏟아 부으며 추구한 복음적 애민 정신이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대한 백성'을 일깨워 '교화된 국민(國民)'이 되게 한 것이다. 그 비전은 한성 감옥에서 주어졌

다.

여섯째로 내일을 위한 준비가 있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노트에 쓴 글 중에 “세계의 유명 인사록”이 있다. 그 글에는 1900년 전후 일본 정치가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나중에 그가 국제 무대에서 직접 상대하게 되는 미국의 헤이 국무장관이나 테프트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미 감옥에서부터 연구한 주제였다.

그것은 기약 없고 허황된 행위였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비참한 감옥에 종주수로 감해버린 청춘(靑春)이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판국에,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명 인사들의 활동 상황을 받아 적으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비전이었다. 감옥으로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열망이 있었다. 훗날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승만은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인정했듯이, 세계 정세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인물이었다.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이승만 앞에서는 꺾릴 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성 감옥에서부터의 치열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감옥에서 그는 세계 최강의 지도자들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가며 세계적인 리더들의 이름, 프로필, 업적을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면서, 이승만은 그들과 어깨를 견줄 리더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할 일없이 빈둥거리러 사람을 리더로 부르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 부름 받는 장면은 하나같이 성실하고 치열한 현장이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마태는 세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소명(召命)을 받았다. 성실은 소명의 출발이요 애국의 시작이다.

일곱째로 한성 감옥은 우리 민족의 골고다였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한성 감옥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권력자 헤쳐서 화려한 왕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고고한 학방을 통해서 복음을 베풀지 않으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곳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참혹한 곳이었다. 십자가에는 억울함과 고통과 잔인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야만적인 십자가를 통해 “세계의 유명 인사록”이라는 가장 찬란한 대업(大業)을 이루셨다.

한성 감옥은 기울어가던 조선의 야만적인 말바닥이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애국자들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 중의 한 사람 이승만에게 성경의 불꽃이 임했다. 그것은 불씨가 되어 감옥으로 변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민족 복음화와 기독교 입국의 꿈을 담은 이들은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들이 훗날 조선 팔도로, 하와이와 미국으로, 만주와 시베리아와 일본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나 번져간 신앙과 애국의 불길이었다.

이승만은 감옥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6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이승만과 옥중 동료는 한성 감옥을 복당(福堂)이라고 불렀다. 그곳은 그들이 아닌, 우리 민족 모두의 골고다였고 축복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도서문의 010-6801-8933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인성공유학교와 함께하는

50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

주제 세계를 품은 청소년
일정 2024. 7. 22.(월) ~ 7. 24.(수)
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
장소 성민원교육관(군포제일교회 비전센터), 현장 실습
문의 (사)성민원 031-397-2051
후원 군포제일교회

프로그램

<p>강의1</p> <p>'청소년을 위한 좋은 성품과 성교육'</p> <p>이영숙 박사 (중남우성중학교 대표)</p>	<p>강의2</p> <p>'종족-미디어-악물 예방'</p> <p>김정희 대표 (전국청년연합 비로소사 대표)</p>
<p>공동체PG</p> <p>'자기이해와 긍정셀프리더십'</p> <p>양지원 소장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p>	<p>봉사활동</p> <p>'독거어르신택 가정방문 활동'</p>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신교장장 임오섭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유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재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은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사면-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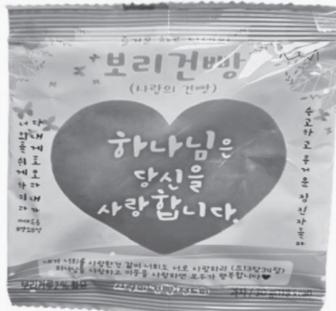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웃는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풍제과 제품입니다!



(*1봉지 17~18개입)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 여류 제도 있음. (수시접수)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6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서 편입.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류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평생교육원)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장사 장대수 목사
 서울시영의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의 대표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청중을 움직이고 강단을 살리는 설교 더하기

신간 '설교에 맛을 더하는 예화 사용법'



강단 위에 선 목사는 설교자로서 소통하는 사람이다. 먼저 하나님과 설교자 자신 사이에 소통해야 하고 또한 청중과 설교자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소통되어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으며 변화가 일어난다. 설교자와 청중이 소통이 되려면, 통하려면 들려야 한다. 살아 있는 설교는 들리는 설교이다. 설교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와 청중의 대화이다. 들리는 설교를 위해 '무엇'을 전할 것인가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

저자 김정훈 목사(서창제일교회 담임)는 들리는 설교를 위해 예화 사용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책 '설교에 맛을 더하는 예화 사용법'을 내놓게 되었다.

저자는 예화를 총론적으로 다룬 후에, 이 시대의 최고 설교자라 할 수 있는 몇몇 설교자의 예화 사용을 설교 전체에서 예

시함으로써 예화가 설교의 흡인력과 호소력을 어떻게 살리는지 각론적으로 예증한다. 이 책은 예화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해서 설교의 효력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 지혜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책 속에서 "예화는 청중의 상황에 적합한 옷을 입을 때 쓰임새가 있다. 설교 전달의 효과성은 설교의 주제를 드러내며 동시에 청중의 상황에 맞는 적실성에 달려 있다. 적실성, 기억력"이라며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하자. 이때 설교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부모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 명제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청중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예화가 청중의 삶과 관계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중이 지금 어떤 일로 기뻐하고 염려하는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을 사랑해야 한다. 청중의 삶을 아는 것에서 설교자의 사랑이 시작된다. 강단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화는 설교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청중의 삶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청중의 삶과 무

관한 예화는 버려야 한다. 공감대가 없는 예화는 하나 마나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화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청중을 끄는 힘이 있다. 어떤 예화인가? 설교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1인칭 예화이다. 1인칭 예화는 설교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1인칭 예화이다. 설교자 본인의 가리킨다. 1인칭 예화는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확신이 느껴진다. 청중은 주일 아침 예배에서 설교자의 개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전달의 효과가 높은 1인칭 예화를 사용할 때 3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첫째, 설교자가 왜 자기 이야기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설교는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둘째, 설교자의 삶의 경험과 본문의 메시지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문과 동떨어진 자기 이야기는 설교자를 '이야기꾼'으로 만든다. 이는 곧 청중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1인칭 예화를 통해 설교자도 청중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 한 인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설교시간을 간증으로 채우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 이르시되(마5:1-2)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덮어 놓고 믿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펴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천준호 '맛있는 말씀 멋진 하나님'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결코 완전히 뿌리 뽑을 수도, 부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속성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는 '작은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들은 인간이 완전히 순결하다는 사실을 거부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전에 가졌던 위대함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천국에 갈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인간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호흡은 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천사와 구별합니다.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부모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떡할까 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찾기도 했는데, 그래도 답답하기만 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즉시 대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 편한 것, 좋은 것, 확실한 것을 두고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앞서 갑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럴 때 나는 회개합니다. 박경애 '최고이신 성령님을 만나라'

신간

영원한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영원한 로고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초월적 오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방법론은 철저히 내재적이고 변증법적이다.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위엄을 강조하는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반체제 신학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예수는 다정다감하고 친근하면서 인간적이다. 그것은 더 이상 독단적인 도그마 신학으로는 기독교 선교를 하기 어려운 어떤 시대상을 보여준다.



<영원한 로고스>의 저자 전철 목사(예실중앙교회 담임)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대해 다루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시키는 이 해체 시대의 기독교 선교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저자가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20년동안 성경 원문을 탐구하면서 깨달은 은혜와 진리가 녹아 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성

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영광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으로 품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의 성육신은 로고스의 신성과 초월성과 영원성을 버리고 유한성의 세계와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물질성, 육체의 연약성, 정신의 한계성 속에 온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그는 세계-내-존재로 역사 속에서 운동하며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으로 품고 전진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랑의 불빛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믿게 된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대신에 그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마귀를 따라간다.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발은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인간의 인간됨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 마리아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쏟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에게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나르드 향유 뱃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가득 채운다. 그 향기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향기는 바로 성령의 향기다"라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말씀이 육체로 바뀌는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것은 언어를 통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담은 성령의 샘이 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구와 동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를 자신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신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공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뭐지?'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기 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확신이다. '나는 꽤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스

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 책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공부(더퀘스트)는 내안의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20년 넘게 한국인의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에 주목해온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적 원인과 효과적 관리법을 담았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꼬였을 때 찾아오는 번아웃은 보통 분노로 표출되고 대인관계를 피하게 된다. 삶에 대한 경교라 할 수 있는 번아웃의 여러 징후를 알려줌과 마음이 소진되지 않게끔 돕는 여러 심리 툴을 제공한다.

우울증은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저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매몰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강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부터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3)

1723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

평온한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수요일 결심을 한 이래로 이전보다 많이 평온하다.

이 기도했다라면, 또한 그 문제를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다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명심해서 미래를 위하여 가장 세밀하고도 부지런하게 회심에 관한 우리 옛 신학자들의 견해를 조사하도록 하자. 오늘 아침 48번째 결심문을 만들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무기력하게 되고 무감각하며, 신앙적인 책들을 읽어도 쉽게 감동되지 않을 때는 나의 결심문들과 묵상한 것 등을 읽도록 하자. 내가 쓴 글들을 읽음으로써 내게 크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심상과 그림들을 간직하기 위해 있는 함꼐 노력하게 되리라는 것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압박한 절제라는 면에서 볼 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일상적으로 늘 행하던 신앙의 의무들이 방해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번 여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요일의 결심을 내 생애 마지막까지 연장하기로 결론지었다.

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롭게도 아주 신속하게 기도응답해주셔서 제가 타락하고 침체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 당신은 이처럼 선하신 은혜로써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 많고 비참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오 내 사랑하는 구세주 시여, 기도와 감사함으로 제 자신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1723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
특별히 다음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자: 악담, 초조해함,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단순한 진리를 말함, 연합기도, 개인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무가력하게 됨과 태만, 그리고 죄를 품고 있는 생각.

1723년 5월 27일 월요일 오후

47번 결심문 실천 노력, 조심할 것들
대화할 때 싫어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표정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사랑스럽고 즐겁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도록 하자. 47번째 결심문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조심하자. 불신, 불만, 불안, 불평, 고집, 자만, 우울, 침울, 반감, 숨김, 게으름, 우물쭈물함. 또한 대화 중에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을 경계하자.

1723년 6월 9일 안식일

의무에 대한 바른 태도
불행하게 되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 내 의무를 다했는가 살피자. 그리고 동시에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하고, 의무를 행하면서 내 의무와 내 죄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말자.

1723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

시간 관리를 잘 하는 방법
자기 점검과 결심문 작성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시간을 적게 들여서 남아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실천 사항 가운데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자.

1723년 6월 22일 토요일 아침

36번 결심문 수정
지난번 수요일에 한 결심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 36번째 결심문을 고쳤다. 만일, 매일 이전에 있었던 상태보다 더 발전되게 만들고, 가능한 한 되도록 보지 않도록 하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내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결심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보다 처음 그것들을 결심했을 때가 내게 더 많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청교도 도서관 제공

1723년 5월 25일 토요일 아침

48번 결심문 작성, 죽음에 비추어 본 삶의 자서, 회심에 대한 연구 결심,
오늘 아침 17번째 결심문을 읽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내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께 서 나의 상태를 알게 해 주시기를 더 많

1723년 6월 8일 토요일 저녁 보스톤에서

1723년 6월 15일 안식일 아침. 윈소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한 반성

1723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문
오,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제게는 당신을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하고, 당신을 송축하고 찬양할 충

바이블지식IN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선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3)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때는 성경은 세상의 부패한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과 대비되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4:4). 요한일서 2:15는 사탄의 체계가 관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이 세 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투, 간음, 교만, 거짓, 이기심 등 모든 죄가 이 세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 55:7은 하나님께로 오는 데에는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존 번연은 자신의 책 천로역정에서 신자의 처지를 '눈은 하늘에', 손에는 '가장 좋은 책'을 들고, '자신의 뒤에 펼쳐진 세상' 앞에서 있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34쪽).

세상은 종종 죄에 환호를 보냅니다. 연예 매체는 우리가 죄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잠언 23:17 참조). 종종 "스타"들의 유명세는 그들이 우리가 각자의 삶에 얼마나 불만족하게 흔들여 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이용



합니다. 대부분의 마케팅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재화와 철학, 우선순위에 집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체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33).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마태복음 6:24).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삶의 방식(고린도후서 5:17)에서 빠져나올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빌립보서 1:27; 3:20).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게 됩니다(누가복음 12:33; 디모데전서 6:18-19).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걸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저해되고 우

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마태복음 3:8; 누가복음 6:43-45; 요한복음 15:1-8). 요한복음 12:25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 씀으로 같은 생각을 더 깊게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연장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아무 가치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37-38).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사탄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체제를 가리킵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는 무엇으로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두신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타는 욕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0:31).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고린도전서 10:7, 14).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자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경계해야 합니다.

갯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23:4 NIV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 even though: 비록 ~한다 할지라도
- walk through: ~을 지나가다
- the darkest valley: 어둠의 골짜기
- fear: 두려워하다
- evil: 해악(害惡)
- your rod and your staff: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 comfort: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시편 23편 4절) 나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해악(害惡)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침향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중량용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향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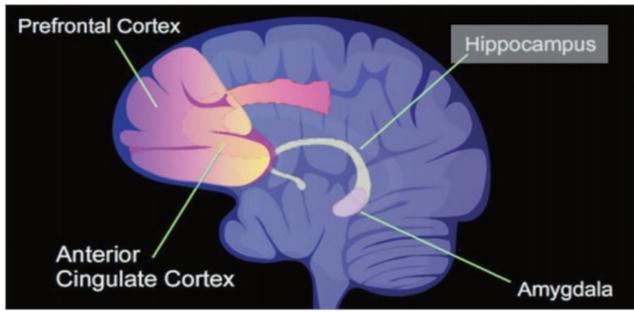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뇌치유상담 기억의 해마, 나이 들어도 재생된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뇌 부위는 해마(hippocampus)이다. 새로운 기억은 해마와 그 주변에서 기억하고, 사건이나 풍경을 기억하는 이른바 사건 기억의 경우도 해마와 그 주변, 시상 전내측부와 전뇌 기저부에서 관여한다. 저장된 기억 중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 버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도 바로 해마이다. ©flickr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려면 콜린이라는 물질이 뇌 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음식을 통해 콜린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제품과 달걀인데, 특히 콩은 건강에 좋으므로 콩 발효 식품이나 두부 등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다. 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neditpix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손매남 박사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지가 오래되었다든가,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뇌가 쇠약해지고 있는 증거이며, 적어도 뇌 상태가 최고가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죽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력의 저하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절한 영양소와 올바른 정보를 뇌에 적용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뇌 부위는 해마이다. 기억은 뇌의 대뇌피질의 바로 안쪽에 있는 대뇌변연계에 속한 해마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기억은 해마와 그 주변에서 기억하고, 또한 사건이나 풍경을

기억하는 이른바 사건 기억의 경우도 해마와 그 주변, 시상 전내측부와 전뇌 기저부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원격 기억은 측두엽 등 대뇌피질에 저장된다. 그리고 저장된 기억 중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버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도 바로 해마이다.

기억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한 시냅스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억의 경우에도 시냅스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기억은 뇌 속의 어느 한 군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의 시냅스의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신경세포를 나무줄기에 비유한다면 줄기에 뻗어있는 나뭇가지는 가지들기에 해당한다. 가지들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뻗어 나가 인접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와 연결된다. 시냅스는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많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하나의 축삭돌기와 10만여 개의 가지들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 속의 시냅스는 1,000조(또는 100조) 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장난감이 가득한 곳에 쥐를 놓아두면 그 쥐는 4일 이내에 새로운 가지들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냅스는 계속 늘어나 뇌에 정보가 기억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시냅스의 가지들기가 쪼그라들고, 시냅스는 2주 안에 약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멈추면 원상 복구되는데, 특정한 기억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지들기가 점점 사라진다. 이때 다시 기억을 사용하면 가지들기는 회복되어 시냅스가

강화된다. 나이를 먹는 것도 젊었을 때보다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해마에 있는 아세틸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의 주요인이 된다. 정보가 뇌 속에 축적되고 이용되며 다른 정보와 연결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해마에 많이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인데, 이것의 부족은 기억이 저하되는 첫 번째 요인이다. 기억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도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흔히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세틸콜린을 먹으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혈액과 뇌 조직 사이에 있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또한 콜린을 먹으면 될 것 같으나, 이는 장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으로 변화되기는 힘들다. 대신 아세틸콜린의 원료를 먹으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아세틸콜린이나 콜린을 직접 먹으면 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원료를 먹으면 된다. 그 원료는 인지질의 한 종류인 포스파티딜콜린(PCP)과 포스파티딜세린(PS), 그리고 뇌 활성제인 디메틸아미노에탄올(DMAE) 등이 여기에 속한다.

PCP의 주 공급원은 달걀이나 콩 식품, 나토, 그리고 어류이며, PPC가 뇌 속의 효소에 의해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될 때는 비타민C, B1, B12, 판토텐산이 필요하다. PCP의 섭취량은 하루 1-2g 정도이며, 중년층이나 고령층에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건강증 같은 실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PS는 신경세

포의 수용체를 지탱해 주는 세포막이 되어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PS 보조제를 복용하면 학습장애 아동의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DMAE는 혈액의 뇌 관문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생성에 훨씬 좋다. 불안이나 초조함도 진정시키며, ADHD 치료제인 리탈린보다 2배 더 효과가 있다. 정어리에 많이 있으며, DHA도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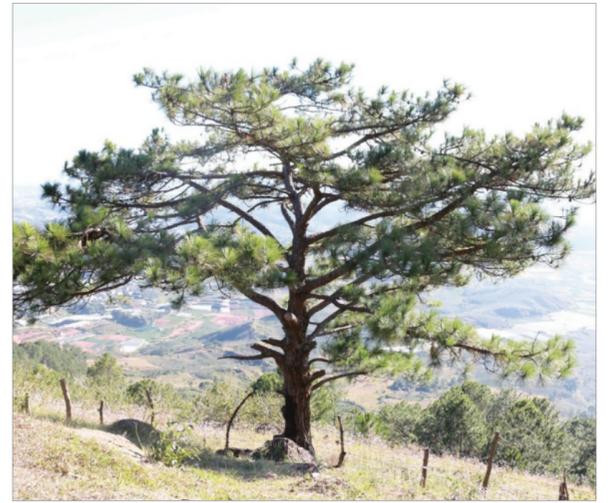
다시 정리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은 가장 먼저 발견된 신경전달물질로 기억, 학습, 각성 등의 작용을 높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과잉 분비되고 있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콜린이라는 물질이 뇌 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음식을 통해 콜린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제품과 달걀인데, 특히 콩은 건강에 좋으므로 콩 발효 식품이나 두부 등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다. 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공부한 후 잠을 자면 외운 것을 적게 잊어버리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뇌의 피로가 회복되고,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먼저 외운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된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도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영혼의 오아시스

소나무 A Pine Tree



무더운 여름 그윽한 향기에 이끌려 그의 곁에 서면

시원한 그늘은 피로를 씻어주고 상큼한 향기는 마음 가득 평화를 채워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자리에 서서 녹색 손을 쳐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저를 만드신 자의 뜻을 위해 뿌리까지 바치게 하소서 사계절 내내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When I stand by it, Attracted by its deep scent In the hot summer,

Its cool shade Relieves my fatigue, And its refreshing scent Fills my heart with peace.

Whether it rains or snows, It prays, Standing in one place With its green hands up:

“Please let me devote myself down to my roots For the will of the One who made me, And let me serve the world With my unwavering faith throughout the four seasons.”

◆ 김완수 시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박사, 시인 겸 수필가, 사단법인 기독교문학가협회 세계화추진위원장, 세계평화문학상, 황금찬 시문학상, 세계시의 기동상, 타고르 기념 문학상 등 다수 시집 <문명의 처방전>, <감사꽃>, <미친 사랑의 포로> 등 다수, 해외 발간 저서 14권.



Rafa Sulfur Spot Pine Shampoo Bar

소나무 숲에서 즐기는 유황 온천욕



9가지
에센셜 오일

All In One

올인원
멀티 케어



유황 온천의
40,240배 농도



10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 043-900-0377

쇼핑몰 주소 www.rafarophe.com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신앙과 가정 복음에 노출된 사람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하심과 더불어 소아시아에 복음의 교두보를 놓기 위한 첫 발걸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교회가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 주변 디아스포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중심이 되었던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토양으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주로, 북미주에서 아시아와 전 세계로 향하는 복음의 핵폭탄이 폭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장 효과 있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시초에 잘되는 출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부딪혔습니다.

한 그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 두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나섰던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에게 첫 번

째 도전은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방해한 바에수(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내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막가의 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다.

그럼에도, 이토록 어려운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사

도바울의 첫 복음 설교가 나오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복된 소식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예수 믿었다니 복을 받았다.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류의 복음으로 우리 세대가 이해하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초기 복음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내 생활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만 전해졌습니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로 초대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이기심을 버리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어 내게 현실적인 이득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

다. 우리는 예수님께 노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말짱할 수 없듯이, 예수님께 노출되면 변화 없는 무덤덤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께 노출되어, 그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봅니다. 내게 이익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착각을 견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주의 마음을 품으라! (1)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복음 증거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말보다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수행 한다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도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복음 증거의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반년 넘게 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감당하는 주의 일이 복음 증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주의 종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주의 마음을 모르는 체모이고 흘러진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한국교회 침체의 제일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론적

복음을 듣기 어렵고 기복론적 복음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연히 침체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6).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첫 예배 설교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넘어!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분파가 생겨 분란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적어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인구 70만의 항구도시로서 상업이 번성하고 이방 신전에서 매음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퇴폐와 부정, 비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고린도에 간신히 세워진 교회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고전1:12) 교회 안에 적대감이 가득하게 된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적 지체 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선생의 이 권면은 반문을 통한 강한 반론입니다. 분란을 조장하는 너희들 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 선생 자신과 몇몇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란을 가슴으로 우려하며 바울 선생에게 와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던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란?

그렇다면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

타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이며 희생의 마음이며 복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근본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그 증거를 말씀으로 보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10:30).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요10:37,38).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요12:45).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요14:7-11).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마16:16).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1:1,2).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

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1:4).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시니라 아멘”(롬9:5).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골2:9).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3).

자기를 비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겸손의 비결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라”(마11:29).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요20:28).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눅22:27).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요”(요13:5). <계속> 창골산 불목사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회중의 키는 예배인도자보다 낮다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간혹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키(Key=코드)이다.



고을일 목사

나는 예배를 인도할 때 간혹 원곡의 키를 그대로 살려서 부를 때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는 장면을 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회중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보통 회중들은 예배팀이 묵놓아 부르는 곡을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예배인도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은 곡의 키를 낮추는 것이다.

만약 인도자인 여러분이 큰마음 먹고 원곡의 키를 낮출 때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곡의 키를 낮출 때에는 회중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음질이 가장 높은 음질이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키를 낮추는 작업은 곡마다 다르며, 예배인도자는 예배 때 부를 곡의 멜로디 라인에 따라서 키를 두 키를 낮추어야 할 수도 있고, 한 키나 혹은 키를 반(1/2) 낮추어 불러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전체적으로 낮은 멜로디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키를 올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나는 지인과 함께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Center)에서 열리는 싱얼롱(Sing-along) 공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수천 명의 회중들과 함께 약 2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웅장한 클래식 공연은 그 누구도 나오자 없이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이사가가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다시 회복되기를 그토록 바랐던 이스라엘 열조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되도록 모두가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도자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한다면, 예배인도자는 회중들 중에 그 누구도 예배를 그저 '보는 사람(Watch Man)'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Worship Man)'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인도자는 예배를 위해 준비한 곡들을 모든 회중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에 더 나은 예배를 준비할 때 꼭 회중들의 키에 맞추어 예배를 기획해보

는 것도 다른 많은 행사보다 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뮤지션들의 기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낮은 키로 만들어진 악보를

웹사이트를 뒤져 찾아서 최소 콘티 안에 한 곡만이라도 적용해보면 왜 그런 수고가 아깝지 않은지 예배 후 성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을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을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찬양의 세대



조성환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긴 인생 여정에 예수전도단을 통해 그리고 22년 동안 미국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 누렸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에 쉼이나 교회 음악연구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은 이런 것이다.

1970년경 한국교회에 밀려 온 경배와

찬양의 새로운 물결은 경직된 예배에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왔다.

물론 축복과 부작용이 함께 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경배와 찬양의 물결은 기성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계시의 복을 한국 교회가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였다.

당시의 일반적인 예배 방식(전통적인 예배)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참으로 귀한 많은 찬양들을 하나

씩 꺼내서 하라해 주셨고 그 찬양들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축복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교회음악을 가르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찬양 사역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 새로운 물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더 이상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닌, 삶으로 찬양하는 세대의 물결이다.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조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곤두박질한다는 소리만 들린다.

이제는 더 이상 음악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벌써 일어나고 있다. 찬양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혹은 그들이 작사한 가사 대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곡가들을 교회역사를 통해 함께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 바로 고희원 선교사 같은 분이 그런 대표적인 사역자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이나 고희원 선교사가 직접 보내주었던 그의 음반을 주중에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들던 중에 나는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노래가 담긴 CD였다. 가냘픈 체구와 항상 건강의 어

려움으로 바짝 말라 있던 형원 선교사,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삶을 던지던 그 형제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즉 행함과 책임을 강조하는 가사를 가진 찬양의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노래와 함께 행함으로 찬양하는 세대 말이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음악적 혹은 특정 예배 스타일에 연연하지 않는 세대이다. 오히려 어떤 스타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내가 내려놓음으로 다른 형제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선호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자가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도 받으시고 인도 사람의 예배와 찬양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으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새로운 찬양의 세대는 또한 단지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육신의 나이가 들었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세대이다.

입술로 드리는 찬양 안에 그들의 영적 인 몸부림을 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또 이런 세대를 꿈꾼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복, 즉 아직까지 받지 못한 복에 연연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오히려 나눌 것을 찾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는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세대에 비해 바로 새로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양의 물결이다.

셋째, 방어진 신앙에서 공격적인 신앙을 가진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신앙을 방어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는 신앙이었다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일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결을 전심으로 좇고, 화평을 좇으며, 관용의 아이 디어를 좇으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

매가 가득한 삶을 적극적으로 좇는 그런 세대의 물결이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본 일초가 아까워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7-18

이런 물결이 고희원 선교사의 사역이나 저의 사역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 받으며, 도전하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함께 싸우는 그러한 세대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물결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찬양한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개그우먼 장효인, 그녀가 인기 절정에 연예계 떠난 이유

개콘 '두근두근'으로 알려져...

GOODTV '매일 주와 함께'에 출연 근황 전하

개그콘서트 '두근두근'으로 유명했던 개그우먼 장효인이 GOODTV '매일 주와 함께'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 중이며, 연예계를 떠나게 된 사연도 함께 밝혔다.

장효인은 2007년 KBS 공채 22기로 데뷔해 박성광, 김준현, 박지선, 장도연 등과 함께 인기를 누렸다. 특히 '두근두근' 코너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슬랩스틱 코미디가 많던 때라 우리 코너는 개그맨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다"며 "후배 이문재가 '푸루푸루'를 들려주는데 '이거 다! 싫었다'면서 '두근두근' 코너의 비하 인드를 전했다.

그러나 인기 절정기에 연예계를 떠난 장효인의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내 바로 위 기수가 박나래 선배다"며 "우리 기수만 20명이 넘고 내 로라하는 선배들도 날개를 못 피던 치열한 시기에 무명 8년 만에 얻은 인기였지만 연예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효인은 "어머니께서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실명 위까지 왔다"면서 "아무리 내가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어머니께 제가 필요한 때였다"고 말했다.

장효인은 "어머니 병세가 심해질 무렵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생각났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기도 좀 부탁하면 안돼?'라고 물었다"고 "어머니는 결국 열흘만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후 친구에게 '나 교회갈 게라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대인기 피증까지 있던 그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 사랑스럽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고 했다.

특히 박지선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장



GOODTV '매일 주와 함께'에 출연한 개그우먼 장효인. ©GOODTV

효인은 "어머니 사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준 동기가 바로 지선이었는 데 비보를 듣고 자책감에 빠져 다시 회의에 빠졌고 아무것도 못한 채 수면제에 의존했다"며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이성이 선배의 주도로 시작한 '성경 읽기모임'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장효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6년째 근무 중이다. 그녀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지만 저는 오히려 어른들과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반문한다"면서 보육교사로서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녀는 "개그우먼을 했던 경력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친구

감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매일 놀이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는 게 어린이집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했다.

그녀는 "지금은 수면제를 끊은 지 오래고 매일 14kg되는 아이들을 안고 기저귀를 갈다 보니 저녁 7시만 되면 자동 취침 모드다"며 "현재는 후배 조승희와 함께 보육교사 힐링 콘서트도 진행해 공감대와 유쾌함으로 많은 웃음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그우먼 장효인의 이야기는 오는 15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GOODTV '매일 주와 함께'를 통해 이 가능하다. 장효인 기자

배우 신현준, 감쪽한 딸 공개... 입술 쪽 '볼 뽀뽀'

배우 신현준(56)이 일상을 공개했다.

신현준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여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리"라고 적고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신현준은 딸을 품에 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신현준은 "가족을 사랑하다(love family)" "고맙습니다 예수님(thank you Jesus)" "기도하는 아빠"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신현준은 12세 연하 첼리스트와 2013년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한편 신현준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 1996년 영화 '은행나무 침대'에서 황장군 역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2006년 영화 '맨발의 천사'에서 8세 소년의 지능을 가진 40세 기둥이를 연기해 화제를 모았다. 영



배우 신현준이 딸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 신현준 인스타그램

화 '킬러들의 수다'(2001), '가문의 위기'(2005) '킬 미'(2009) '살수'(2023), 드라마 '울랄라 부부'(2012) 등에도 출연했다. 신현준은 현재 CTS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을 맡고 있다.

전재경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강단 삼일(송태근)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황웅식 목사(신애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해들영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50 하용호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아저작)	00 생명의 양식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선교는 지금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20 말씀의 센터 춘천사랑의교회 윤대영 목사 50 말씀의 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30 채경선 교수의 가족이 뭐길래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큐티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50 매일 주와 함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병탁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말하는 시간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	00 말씀의 창 - 성경교회 유관재 목사 30 비전메시지 -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백세특강	50 말씀의 센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0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10 새롭게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5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20 말씀의 센터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5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20 크리스천 슈퍼맘	00 파워인터뷰 20 허니문들 기쁘시게 7004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2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열광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채경선 교수의 가족이 뭐길래	20 세상을 보는 창 50 만나다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원호복 목사
오후	12:00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말씀의 센터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말씀의 센터 하늘공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한신(강용규)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훈은 목사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센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율포원	00 힐링토끼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광석(김동찬) 30 CBS 아카데미 숲	00 믿음의 리액션 40 우리 함께 찬양해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기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신통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성지가 좋다
	16:00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GOODTV스페셜 로드기행 이경의 건다보면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원더풀 바이블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눔 기도회 50 맞나는 교회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백설기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센터 거룩한빛은정 우정상 목사 30 말씀의 센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50 영혼의 양식 신위의마을(김영준)	00 선교는 지금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행복플러스 30 헤세드워십 50 더 메시지	10 레디온 5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홍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30 위대한 유산	00 말씀의 센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실소>2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비전메시지 - 전주순교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관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비전설교 해성교회 정영호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순복음원담(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촌교회 김민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2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5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나의 십자가 30 제 33회 6.25 상처 기록장벽 구국성회
	22:00 1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10 예수 더 라이프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셸레이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0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10 더 콜링 30 오늘 만나는 큐티 50 찬양예배 주님께 말하는 시간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리바이츠워십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가족의 축복	1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00 만나
	1:00 00 하나님의 음성 20 말씀노트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00 신사랑 프로의 워포인트 골프레스 10 예수 더 라이프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4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감병삼 목사의 365 매일 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분)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김형익 목사(백산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임석웅)	00 만나 위임	
3:00 00 다시보는 CTSWEEK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맞나는 교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조준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교회 이경연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 50 CBS 교회소식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만나교회 강병삼 목사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프리미엄 투자 가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힐스테이트 삼성

대한민국 1번지 **강남** 국제금융 및 무역의 중심지 **삼성동**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대동맥 **테헤란로**



강남구 핵심 입지 삼성동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힐스테이트

사교와 건강을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 스페이스



프라이빗 다이닝룸, 미팅룸/스터디룸, 게스트룸, 오픈라이브러리, 헬시바, 프라이빗 집, 피트니스, 골프룸, 샤워룸

지하 7층~지상 17층
100% 자주식 주차
2~3실 오피스텔 165실

TRAFFIC

-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스타필드 등 쇼핑 문화의 삼성동
- 강남구 8학군과 유수의 학원단지 대치동
- 하이엔드 주거의 상징, 명품거리의 청담동
- 강남업무지구(GBD)의 중심 테헤란로 직주근접

LIFE INFRA

- 2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도심공항 터미널 등 대중교통망 도보 생활권
- 영동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

VISION

- 국제교류복합지구(예정),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예정)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예정), GTX-A/C 노선(예정), 워레신사선(예정) 등

상담문의전화

1811-0277

※ 상기 기재된 각종 개발 예정 사업들은 향후 사업주체나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주변현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주관입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커뮤니티시설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이미지는 소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